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909 1982년 8월 24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uesday, August 24,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TORONTO, CANADA M5S 1A5
SEP 1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영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팔」게릴라 소탕작전 70여일만에 일단락

PLO 철수 개시

본부요원은 리비아, 나머지는 아랍각국

(베이루트)22일 팔레스타인병사 본부요원 1천명이 베이루트항을 떠남으로써 지난6월7일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침공으로 불붙은 최근 중동전쟁은 70여일만에 일단락된 듯 하다.

레바논에 주둔하고 있던 팔레스타인 병사들을 말끔히 쫓아내기 위해 숨가쁜 협공을 가해온 이스라엘군은 야세르·아라파트를 비롯한 PLO주력부대 1천명들의 무기 휴대문제로 한때 철수에 제동이 걸렸었으나, 마지막 순간 타협에 성공, 팔레스타인군 철차의 이동을 허락했다.

PLO 철수를 지휘하던 한 이스라엘군대령은 "우리는 더 이상의 분쟁을 원치 않기때문에 이 정도로 양보했다. 그러나 다시는 그들이 이땅에 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병사를 실어나르는 사이파이로트함을 봉쇄했던 이스라엘 전함들이 철수하자, PLO는 일단 사이프러스에 정착했다가 최종목적지인 아프리카의 튜니지아 로 향한다.

PLO의장 아라파트의 측근과 본부요원들로 구성된 이들은 튜니지아를 거쳐 리비아에서 최종본거지를 차릴 예정이다.

오는 9월초까지 계속될 팔레스타인군의 철수를 지켜보기 위해 미해병대, 이태리군, 프랑스군등이 베이루트 주변에 속속 도착했다.

팔레스타인군(PLO) 7,100명, 시리아군 1,500명, 시리아군 산하 팔레스타인군 약3,000명이 각각 시리아, 남예멘, 이집트, 요르단등 아랍 각국가로 분산된다.

한편 요르단의 후세인왕은 22일 쫓겨나온 PLO게릴라 265명에게 "이스라엘 침략자에 대항, 용감히 잘 싸웠다"고 격려했다.

◆아라파트의 초상화를 들고 베이루트항을 철수하는 팔레스타인 게릴라군. 쫓겨가면서도 승리의 V자를 표시하는 기개가 대단하다.

캐나다 투매금지법 강화
한국, 수출진흥에 큰장벽

(서울23일=연합)한국과의 주요 무역상대국들은 국산품에 대한 관세 장벽을 강화시키고 있다.

23일 한국무역인협회는 한국상품의 수출가격이 지나치게 낮은 때문에 자국산업을 보호해야한다는 것을 이유로 점차 한국수출품의 시장침투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캐나다정부의 경우 스테인레스 강철판, 강철봉및 철사에 대해 지난 6월이후 투매금지 (Anti-Dumping)법 위반을 조사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조사가 끝나는대로 한국산철강제품의 대캐나다 수출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캐나다정부는 지난 7월이후 한국산 종합상품에 대한 19.8%의 투매금지세를 부과시켜왔다.

작년3월부터 이미 자전거·자동차 튜브및 타이어에 투매금지세를 부과해온 미국은 앞으로 한국산 못, 열체 강철판등 철강제품에 대한 새로운 투매금지세및 상쇄관세를 부과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호주, 영국, 유럽등의 국가들도 이와 유사한 조치로 자국생산품을 보호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국무역인협회가 보고했다.

해외2세과학자초청
한국과학 발전위해

(서울21일=연합)한국은 해외에 있는 5백명이상의 한국인 2세 과학자를 초청, 한국과학기술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과학기술처 방안에 의하면 1990년까지 10억7천만원을 투입, 539명의 과학자를 초청한다. 오는 85년까지 185명을 우선 선발한다.

이 계획은 2세과학자를 한국으로 청하기도 하고, 과제를 주어 해외에서 연구하게 하기도 한다.

한국, 성교육실시
유치원생에게도

(서울21일=연합)한국문교부는 내년부터 성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21일 문교부소식통에 의하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학생까지 성교육을 가르치며, 1주일에 적어도 1시간 이상씩 필수과목으로 한다.

현재는 몇몇 중고등학교에서 성도덕으로 가르치고 있다.

성교육 내용은 남녀의 생물학적 구조와 임신, 건전한 이성교제등이다.

추계야구대회
대표팀, OB팀2종목

한인운동구점인 브랜든스포츠사(사장 이건영)는 9월4일(토)~5일(일) 상오8시30분 이토비콕 센테니얼파 야구장에서 브랜든스포츠사배쟁탈 제2회 야구대회를 연다.

각단체 대표팀, O.B팀(51년 12월말이전 출생자)의 2종목으로 실시될 이 야구대회의 추장회의는 28일(토)하오7시 브랜든스포츠사에서 있다.

연락처 755-6434(박재선), 598-3732(브랜든스포츠사)

〈논 단〉 한민족의 사상적 뿌리

박 희 민 논설위원(한인장로교회 목사)

우리 한국 이민자들이 이땅에서 성공하고 번영해 가려면 주체성을 잃지 않고 이민의 뿌리를 이곳에 깊이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먼저 우리들 자신의 정신적 문화적 뿌리를 바로 파악해야 한다.

우리는 가끔 우리들 자신이 한국에 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금하지 못할 때가 있다.

한국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인의 사상과 문화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을 제기할 때, 우리가 너무 우리의 것에 대해 등한시해왔고, 무식하다는 것을 솔직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된다.

우리는 한국인의 의식구조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몇가지 사상적 유형을 엿볼 수 있다. 그것이 첫째로 샤마니즘이요, 둘째는 불교사상이며, 세째는 유교사상이다. 그리고 끝으로 근대사에 들어서면서 접한 그리스도교 사상이다.

우리 겨레의 사상적 바탕을 이해하려면 이 네가지 종교적, 사상적 패턴을 분석·검토해 보지 않으면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복합적인 사상이 대결하고 융합되는 엇갈림의 과정 속에서 오늘의 한국적인 사상이 형성된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네가지 사상을 꿰뚫고 있는 보다더 근원적인 한국인의 사상적 원형(Archetype)이 무엇인가를 묻게 된다. 그것을 우리는 「한」자에서 찾아볼 수 있을것이다.

우리 민족의 대명사가 되고, 우리 겨레의 사상적인 근간을 이루는 「한」자는 원래 곰의 숨소리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 이렇게 생겨난 「한」은 우리 겨레의 사상적 맥락 속에서 샤마니즘, 불교, 유교, 그리스도교 사상을 아무 갈등 없이 받아들이면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해온 것이다.

「한」의 개념을 찾아보면 한없이 폭넓고 포괄적이다. 우선 시간적인 의미에서 생각해볼 때 시간 전체를 뜻하면서도 시간의 한 중심점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한겨울」하면 겨울 내내를 뜻하게 되는 동시에 겨울의 절정을 이루는 중심부를 뜻하기도 한다. 공간적인 의미에서도 「한길」하면 크고 넓은 길이 되는가 하면 길복판이란 뜻을 담게 된다.

질량적인 의미에서도 「한」은 하나(1)란 뜻이 있는가 하면 많음을 뜻하는 상반적인 개념을 담고 있는 것이다. 「한갓」은 최소한의 개념이고, 「한껏」은 최대한의 뜻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한」자에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을 한데 묶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한문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비이원론적인 사상(non-dualistic thought)이나 비시원적(non-orientable thought)으로 묘사할 수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음양사상이 바로 비이원론적 사상이다.

우리는 흔히 이 음양사상이 중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역사를 깊이 연구해 보면 음양사상은 한국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 원천이 동이족(고대한국)의 것으로 나중에 중국에 영향을 주어 「주역」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비이원론적 사상의 의식구조를 가진 한국인이 과거에 서구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 때문에 무시되고 곡해된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한국인은 "차를 드시겠어요? 커피를 드시겠어요?"하고 물으면 곧잘 "아무것이나 주세요"하고 대답한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선택적인 응답이 아니고, 포괄적인 응답을 나타낸다. 이것은 한국인의 비이원론적 의식구조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한국인의 의식구조가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의 서구사회에서 무시되어 온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최근 인류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이 A.N.화이트헤드에 의한 과정(process) 사상이다. 이 과정사상의 비이원론적인 사상에 의해 전통적인 이원론 사상이 대치되기 수천년전, 우리의 조상들은 이미 인간과 사물을 비이원론적(non-dualistic)으로 보아온 것이다.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예수그리스도는 하느님인 동시에 인간이었다"는 개념을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신비적 역설"이란 말로 얼버무린다.

그러나 한국인의 비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 의하면 "그는 하느님이면서 인간이었다"는 것이 모순 없이 받아들여 진다. 음양은 두개이면서 하나이다. 이 둘은 상반되는 듯하면서도 사실은 서로 보충의 관계에 있는 까닭이다.

「한」사상은 주관과 객관을 분리시키지 않는다. 우리가 주관적으로만 사물을 이해할 때 문제가 생긴다. 마찬가지로 객관적으로만 이해하여도 문제가 생긴다. 주객일치의 사고여야 포괄적이고 종합적일 수 있다.

「한」사상의 특징은 이러한 「종합과 조화」의 묘미에 있다. 이 종합과 조화는 결코 「하나」를 무시한 종합이 아니라, 뚜렷한 개성을 가진 하나 하나가 모여 전체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조화요 종합인 것이다.

이러한 「한」사상은 캐나다 사회처럼 모자익(Mosaic), 또는 다양문화사회(multicultural society)를 지향해 가는 다원사회(pluralistic society)에서 크게 기여하고 공헌할 수 있는 사상적 자원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애국가대신 북한국가
가봉군악대, 전대통령 환영식서

(도꾜-LA지사)가봉국을 순방중인 전두환대통령을 위한 환영식장에서 「애국가」대신 북한국가가 연주됐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23일 교도통신은 서울소식통을 인용, 가봉에 도착한 전대통령 일행 환영식에서 북한국가가 반쯤 연주된뒤 다시 애국가로 바뀌어 연주됐다고 보도했다.

이 사실은 한국정부에 공식 통보됐다. 한편 알버나드 봉고대통령은 이같은 실수에 대해 정식 사과하고 관계자들을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가봉국은 현재 남·북한과 각각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방문 마쳐
경제, 정치협력 논의

(라고스, 나이지리아 21일=연합)아프리카및 캐나다 순방길에 오른 전두환대통령은 2번째 방문국인 나이지리아 알하지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를 논의했다.

양국원수는 국제정치에도 언급, 비식민화 정책에 공동 관심을 표명하고, 아시아·아프리카 결속관계를 논의했다.

전대통령 일행은 나이지리아 방문을 마치고, 22일 3번째 방문국 가봉으로 떠났다.

은하 보석
반금화상품 대리점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귀국선물
☎ 534 9977.7791 620A Bloor St. W.

Merrill Lynch Royal Securities Ltd.
금·은·증권·Bonds·RRSP에 대한 투자는
361-3428(B), 447-1374(R) : 김상욱
증권은 경기변동에 따라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데 경기회복 6개월 전부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많은 투자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일, 이십년만에 한번 올수있는 절호의 기회가 증권투자에 오고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근거는 무엇인가?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7-3171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강학수 종합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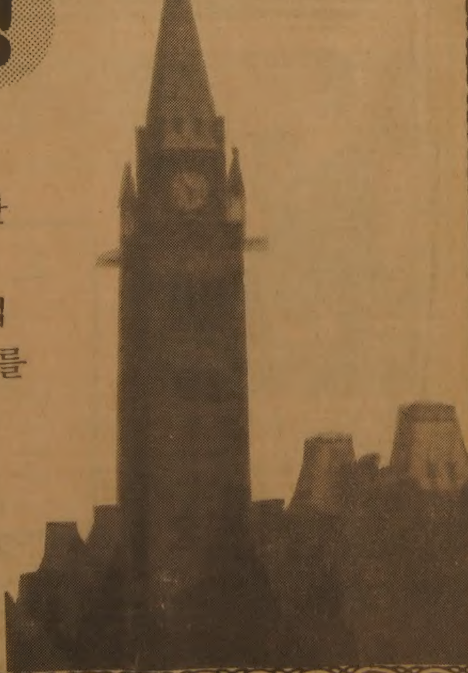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환 영

태평양시대를 개막시키려는 각하의 부단한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각하의 이번 방문이 양국의 밀접한 관계를 더욱 가깝게 해주는 기틀이 되기를 삼가 바랍니다.

토론토 미도파 백화점
대표 장추신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3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토론토·선은 $75,000지급하라
먼로장관 명예훼손판결승소

토론토·선지는 작년 6월2일 존·먼로 연방 인디언 문제 담당장관이 주식사기에 개입했다고 고소, $75,000의 보상금과 법적비용을 지불토록 판결받은데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두그·크레이톤 선지 발행인이 20일 밝혔다.

이날 온타리오주 대법원의 존·홀랜드판사는 피해보상비 $75,000와 함께 법적소송비도 선지가 부담토록 했다.

법적소송비만도 수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레이톤 선지 발행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홀랜드 판사의 언론의 책임에 관련된 판결은 공평무사한 것으로 항소를 제기치 않을 것이며, 이로써 선지는 더 나은 신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지는 베테랑기자 도날드·템지와 로버트·레귤리의 공동기사에서 먼로장관이 「몰리」투자회사의 간부로 있으면서 작년2월 페트로 캐나다석유회사가 페트로피나석유회사를 인수할 당시 주배당금조로 $116,000을 착복했다고 보도했었다.

「몰리」회사는 80년9월에 2,200개의 페트로피나주식을 구매 이듬해인 81년 1월에 거의 두배의 금액을 받고 주식을 팔았다고 선지는 보도했었다.

문제의 기사가 나간지 일주일뒤 선지가 기사를 전면취소하고 정식사과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 먼로장관은 이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 갔었다.

이 기사로 템지기자는 해고 당했고, 레귤리기자는 사임했었다.

먼로장관의 변호사가 청구한 보상액은 판사가 배정한 액수의 10배인 $75만이었다.

여자우주인 포함 소련 위성발사

(모스크바)소련은 19일 여자우주인 1명과 남자우주인 2명을 태운 위성을 공중에 발사했다고 관영〈타스통신〉이 발표했다.

일본 자문교수들 교과서개정 주장

(도꾜)일본정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대학교수들까지도 일본은 교과서를 왜곡하지 말고,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고 믿고 있음이 19일 한 통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밝혀졌다.

〈교또통신〉은 17명으로 구성된 교과서편찬 자문위원중 두명이 일본의 군국주의적 행위를 사실대로 기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4명의 자문위원은 교과서개정을 위해 저자세를 보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고, 다른 5명의 위원들은 언급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교과서의 사실기록을 주장한 교수는 메이지대학의 세끼요·시모이메 교수와 동경대학을 야수히꼬·오이시교수이다.

이 여론조사에서 시모이데 교수는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교과서에 그대로 담아야 한다"고 말했고, 오이시교수는 "교과서를 개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 · 2361

록키의 절경을 렌즈에

◆카메라 하셀브라드 500CM, 500MM, , focus 8, 1/250.

〈사진 : 김명선〉

하늘을 담은 천연거울 레이크·루이스. 고요로운 마음으로 노저어 인어아가씨들이 손짓할 듯…

'바바라'에 물으세요

▲필자.

이것이 북미생활이다

경찰과의 다툼은 금물, 시키는대로함이 상책
차사고땐 정보교환후 보험회사에 맡기도록
외국인낀 파티…말 필요없는 놀이도 준비를

○문: 며칠전 저는 학교구역에서 속도를 냈다고해 경찰로부터 티켓을 받았읍니다. 방학중이라 학교주변에 아이들도 없었고 그렇게 빠른 속도를 낸 것 같지도 않아 순경에게 양해를 구했는데 소용이 없었읍니다. 그래서 저는 섬이나 경찰과 옥신각신 언쟁을 벌였읍니다. 한국경찰들은 융통적인데 이곳 경찰들은 왜 이렇게 딱딱합니까? 〈휘치 Mr. 리〉

●답: 이곳에서 경찰하고 말씨름을 하는 것은 아주 금물입니다. 분명하고 빈틈없는 자세로 경찰이 묻는 말에 대답만 하면 오히려 그가 훈계만으로 그칠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순경들은 일정량의 티켓을 발부해야 할 쿼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티켓을 안받을 수가 없을것입니다.

만약 진정으로 당신이 속도위반을 하지 않았다면 판사에게 잘 설명하는 길밖에 도리가 없읍니다.

이곳 경찰들은 위험한 사람들을 많이 대하기 때문에 경계를 많이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하는대로 지켜만 보는 것이 상책이며 벌금도 세금을 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문: 수주일전 출근길에 미처 신호등을 보지 못해 앞차와 충돌했읍니다. 앞차주인이 언성을 높이면서 따져 저는 상당히 떨렸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직접 상대하기가 무서워 남편에게 전화하려고 자리를 뜨려니까 이사람은 더욱더 성을 내는 것입니다. 제남편이 곧 와서 모든 것이 잘 해결됐읍니다만 앞으로 또 이런일에 처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읍니까? 저는 이 일로 운전하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LA Mrs. 박〉

●답: 사고가 나면 사람들이 성을 내는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성을 안낼수 있다면 더욱 좋을것입니다.

사고가 났을때 가장 좋은 처신법은 우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일입니다. 즉, 서로의 운전면허번호, 보험회사및 보험번호, 그리고 자동차 라이센스번호등을 주고 받아야 됩니다. 자동차를 빨리 길옆으로 옮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작정 말도없이 전화를 걸러 가는 것은 책임회피 인상을 줍니다.

또 절대로 사과를 하거나 변명을 할 필요가 없읍니다. 책임소재를 따질 필요도 없지요.

필요한 정보만 교환하고 피해정도만 체크하면 나머지는 모두 보험회사에서 처리해 줍니다.

만약 당신이 보험이 없으면 그자리에서 잘잘못을 가리고 피해정도를 분명히 해서 수리문제까지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상당히 까다로와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며 만약 당신께서 잘못했다고 판단되면 당신이 신뢰하는 자동차수리쎈터로 상대방 차를 끌고가 수리견적을 받으십시요.

○문: 저는 바깥양반의 사업상 이유로 디너파티를 열게 되었는데 초청객중에는 미국인도 있고 한국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간에 의사소통이 안돼 서로 친숙해지지 못하고 분위기만 어색해지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읍니까? 〈오렌지카운티 Mrs. 최〉

●답: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해 봤읍니다. 이경우 영어와 한국어를 둘다 능통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여러명있어 분위기를 잘 리드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의치않다면 음악을 듣거나 댄스같은 말이 필요없으면서 공통적으로 모두가 즐길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파티가 딱딱한 것이 아니고 손님수도 적당하다면 간단한 오락게임이나, 윷놀이등을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읍니다.

=이철수 제1사건 공판=
중국인 증인 4명확보

(상항지사)이철수씨의 차이나타운사건(제1사건) 재판을 속개중인 샌프란시스코 수피리얼법정은 20일까지 검찰측 증인심리를 끝내고, 23일부터 변호인측 증인심리에 들어간다.

이철수변호인은 19일현재 1973년 차이나타운살인사건 당시 6명의 목격자중 1명의 증인을 비롯 , 지금까지 재판에 출석치 않았던 유력한 증인들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변호인측은 차이나타운 갱살인 진범을 알고 있다는 증인을 포함해 4명의 중국인들을 확보했으나, 이들 증인들이 신변위험으로 비공개 재판을 원해 18일 재판부에 비공개재판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유명해진 E.T의 친구–공상과학영화 E.T에 출연해 쾌활하고 꾸밈없는 모습으로 인기를 얻은 드루·배리모어양. 일약 스타가 된 그녀이지만 학교친구와 함께 헐리웃에 영화보러 가면 보통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줄을 서서 표를 사는등 아직 순진하고 소박한 소녀이다.(L.A.)

교민동정

◆신우원·김원도(한맘소년축구팀 지도자)=불심양면에 많은 시간까지 아낌없이 희생해 가면서 소년축구팀을 이끌어, 지난 14일(토)과 21일(토) 2일에 걸쳐 실시된 〈민중신문〉사 주최 소년축구대회에 대거 4개팀(소년부 2, 유년부 2)을 출전시켜 21일의 결승에서 유년부 우승, 소년부 준우승및 응원상의 3개부문을 휩쓸었다.

결혼축하

신랑:송경철씨 장남 광룡군
신부:양우석씨 8녀 승희양
때: 9월4일(토) 정오
곳: 쎄인·폴 성당 (83 Power St. Tor)
주례: 고마태오 신부

〈바로잡습니다〉

지난 19일(목) 본지 제2면에 실린 〈5분인터뷰 강찬영변호사 개업 1년여〉제하의 기사중 일부가 교정실수로 잘못나갔기에 정정합니다.

기사 세째문장 「그동안 강씨는 약 1,500건의 교포를 법률케이스를」 다음에 「다루었다」가 빠졌고, 마지막 문장 「중국인들은 토론토에만 약50만명의 변호사를 가진 것에 비하면 우리는 변호사가 너무적다」중 「50만명」은 「50명」의 잘못이었읍니다.

한국교회의 문제점 4
사회구원은 자기구원으로부터

김낙중 (해밀턴한인연합교회 담임)

그러나, 〈사회 구원〉이라는 표현 자체가 나오게 된 배경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람이 사회적 – 즉 Polis 안에 사는 –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성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계약(covenant)이 그들 전체를 상대로 이루어졌다는 〈집단적 실존〉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다. 비교적 단순한 정치, 경제 사회 안에서 살며 monad로서의 개인과 자족(self-efficiency)의 개념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복잡한 유통구조와 정치 사회 안에서 살게 되면서 집단적 개념으로서의 〈나〉의 의미를 파악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나〉란 〈나 자신〉과 〈환경〉의 연합체이며, 실제로는 〈환경〉이 〈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나〉와 〈이웃〉, 혹은 〈세계〉의 병존은 처음부터 허구적인 개념이었으며, 〈나〉는 〈세계 안에 있는 존재〉(Sein–in–der–Welt)이며, 〈나〉 안에 이미 〈이웃〉이 포함된 것이다. 개인을 〈구조적 삶〉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나를 건지려면 나의 환경을 전져야 하고, 세계가 구원되려면 내가 구원되어야 한다는 명제가 성립된다.

그러한 인식 이후에야 기독자로서의 윤리적 사명의 자각이 따른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누가 〈착한 이웃〉이냐는 문제에 앞서서 누가 강도만난 사람이냐는 문제가 제기되어야 바른 이해가 가능하다. 내가 바로 수탈당한 〈땅의 사람들〉의 하나로서 내가 나를 도와야 하는 것이다. 나와 이웃의 구별은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았다. 바로 여기에 〈사회 구원〉의 함정이 있다. 自未渡利他先이라는 대승(大乘)의 이상이 가짜 대승으로 쉽사리 타락하듯이 이웃에게 선을 행함을 기독교 신앙의 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과 이웃의 어느 한편도 건지지 못하게 됨이 이상한 것도 아니다. 上求菩提는 하지 않고 下化衆生을 도모할진대 세계는 달라지지 않고 나만 파멸되고 말 것이다.(결국 내가 멸망함으로써 나의 세계도 멸망한다)

〈사회 구원〉이라는 이상을 수호하는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또 하나의 사실은 복음의 대상인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의 정체 파악이다. 자본주의 경제구조 안에서 계획적으로 착취되고 부의 공평한 몫을 분배받지 못해서 가난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빈곤해서 가난한 사람도 복음의 대상이다. 정치 권력에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힌 사람 뿐 아니라 악마와 죄의 사슬에 얽매인 사람도 억눌림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오랫동안 교회가 눈돌리지 않았던 쪽으로 조명이 돌려져야 함이 당연하다. 그러나 개혁자의 정신이 아기를 목욕시키고 나서 물과 함께 아기까지 버리는 실수로 이어지면 곤란하다.

이제는 "예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사람을 들어라. 출옥 성도의 교만을 꺾으려고 핍박당하는 동역자들을 비난하고 있는가? 양화진에서 목날린 천주학장이들이 사실은 순교한 것이 아니라 조상의 위패를 불사르고 나랏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충효의 도리를 거역하여 개죽음하였다고 말하고 싶겠지. 신사 참배는 신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다시 말해야 되겠지. 〈비성서적〉이라는 표현을 비난에 자주 채택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이 성서적이 아님을 모를까? 속으로는 부끄럽지만 장사목 빼앗기기가 억울해서 〈나의 조국, 나의 하나님〉하는지 이해하고도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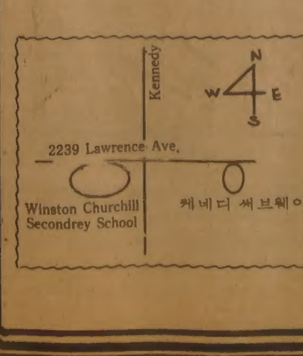
영화의 밤

"꼭 보십시요!" "감동적인 이 영화를"

1. 대종상을 받은
"사랑의 뿌리"
일시 : 1982년 9월10일(금) 저녁 7시
❶씨나리오 최우수상
❷최우수 작품상
⊙주연 : 장동휘, 윤일봉, 황정순 외.

일제 말엽 소록도의 비극과 김정복 목사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순교이야기로…
해방과 6.25를 거쳐 생이별했던 주인공 박학구씨의 두 자녀중 한 아들이 조련계의 임무를 띠고… 눈물없이는 차마 볼수 없는 이 영화!

2. 기독교 십자성선교회작품
"사랑의 원자탄"
일시 : 1982년 9월11일(토) 저녁 7시
◎감독 : 강대진
◎주연 : 이신재, 송승환, 박소미, 이형준
활석 손양원 목사 순교실화



장 소 : Winston Churchiel Secondary School
2239 Lawrence E.　입장료 : 1불(장내 정리비)

주 최 : 승공문화협회　협 찬 : 교역자협의회, 토론토지부 장로협회

단 편

불루어스트리트의 하루 ⑨

이 태 준(문협회원)

"송씨 어때? 병원으로 빨리 옮길 거야? 한번 해볼 거야?"

한국재가 한숨을 쉬며 송씨에게 물었다.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뒤집어쓸 경우가 있다는 염려를 하고 있는 침술사 송씨는 망설이고 있었다.

"자신이 없는 모양이구먼. 그럼 빨리 앰블런스를 부릅시다."

한국재가 서둘러야 한다고 다구쳤다.

"병원에 가도 도리는 없을 것입니다."

송씨의 절망적인 말이었다.

김노인의 딸의 울음소리가 거칠어졌다.

"한국에 가셔서 돌아가시고 싶다고 하시더니."

꺽꺽 막히며 서럽게 뱉아내는 딸의 말이다.

"면목이 없읍니다마는, 병원으로 옮기기 전에 한번 해 보시죠."

사위 전씨가 침술사 송씨에게 사정하였다.

"좋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갖지 마세요."

결심한 침술사 송씨가 침이 무수히 꽂혀 있는 지갑크기의 케이스를 열고 침을 놓기 시작했다. 정확한 혈을 찾아 침을 꽂으려는 침술사 송씨의 손끝에 땀이 배고, 콧등에도 송송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바늘 하나로 꺼져가는 생명을 건지려는 그의 일념은 손과 콧등 위에 송송 땀으로 맺혀 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얼마를 지났을까? 짧은 시간이 십년같은 순간이었다. 김노인의 오른손 위에서 침술사 송씨의 마지막 침바늘이 바르르 떨고 있을 때,

김노인에게 희미한 반응이 오기 시작했다. 감겼던 눈이 힘없이 열리고, 입술이 움직이며,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았다.

딸이 "아버님!"하고 소리치며 달려들었다. 그러나 김노인은 무슨 소리인가를 하는것 같이 입술을 움직이다가는 다시 의식을 잃고 말았다.

김노인의 반응에 약간 흥분을 하고 있었던 송씨가 마지막 침을 뽑으며 힘없이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송씨의 말 뒤로는 아무도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사위 전씨가 허탈하게 전화 옆으로 걸어가 앰블런스를 부르기 위해 다이알을 돌리는 소리가 유난스럽게 크게 들렸다.

한국재가 담배를 입에 물며 체념한 듯 허공을 바라보고 있던 김노인 딸에게 다가가,

"어떻게해서 이렇게 되셨읍니까?"

하고 침묵을 깼다.

"제가 낮에 선생님댁에도 들렀지만, 한인상가를 이잡듯이 뒤지고 다녀도 아무도 아버님을 보신분도, 소식을 아시는 분도 없어요. 겁이 덜컥 나데요.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해두고, 혹시나하고 이 아파트현관 앞에서 10시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관리인이 오래 기다리고 있는 나를 보더니 멀리 나갔으면 아파트안에 무슨쪽지를 남기고 나갔을지도 모르니 아파트문을 열어줄테니 한번 들어가 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글쎄 아파트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2일동안이나 연락이 안되었으면 만48시간을 아무도 몰랐구먼."

김노인의 딸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한국재가 비통하게 중얼거렸다.

"한국으로 가시고 싶다고 하셔서 형편이 풀리는 대로 가시게 할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혼자 사시게 됐지요?"

"그것도 저희들의 어려운 형편때문이었어요. 지금 저의 집에는 시부모님도 계시거든요. 수입도 넉넉하지 못한데다, 서로 사돈까지 모시고 사니 애기아빠와의 불화도 많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웰페어를 타시게 되니까 아버님 혼자 그냥 나오신 거예요."

김노인의 사위가 창문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한국에 가서 죽어 어머님곁에 묻히고 싶다고 늘 말씀하셔서 조금만 참으시면 보내드리려 했는데…"

"한국에 누가 있나요?"

"제 여동생이 결혼해서 살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로 오시게 되었구요."

앰블런스가 도착했는지 "앵앵"거리는 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려오더니, 두 사내가 들것을 들고 뛰어올라와 숙달된 솜씨로 김노인과 딸, 사위를 싣고 다시 "앵앵"거리며 떠나버렸다.

한국재는 아파트를 빠져나오며, 내일이라도 당장 코리아타운의 협동회를 소집하여 도울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계획중인 양로원의 건립도 서둘러야겠다고 다짐하며 더딘 발걸음을 옮겼다.

싸늘하고 울적한 마음에 밤의 냉기가 찾아들고 있었다.

〈끝〉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흉악한 사나이

<54>

어떤 殺人 ①

"너 임신했잖니… 만일 그놈의 씨라면…"

金聖鍾작

朴 男 그림

이튿날 문자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오빠를 또 만났다.

두봉은 식사하기 싫다는 누이를 데리고 회사근처에 있는 일식집 방으로 들어갔다.

「돈은 준비했니?」

「네, 준비했어요.」

「어디, 2천만원 구경이나 해보자.」

문자는 백속에서 1천만원짜리 자기앞 수표 두장을꺼내 탁자위에 놓았다. 두봉은 그것을 집어들고 한참동안 뚫어지게 들여다보았다. 두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준비는 했는데…어떻게 하지요?」

「지금까지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쉽게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 하여간 식사나하면서 다시 생각해보자.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

두봉은 수표를 누이에게 돌려주고 나서 술잔을 집어들었다.

문자는 조금도 식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오빠가 하도 권하는 바람에 생선찌개 국물을 떠서 입으로 가져갔다. 순간 구역질이 치밀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면서 「엑」하고 토했다. 입속에 들어갔던 국물이 손가락 사이로 줄줄 흘러내렸다.

「아니, 너…?」

두봉은 눈을 크게 뜨고 누이를 바라보았다.

문자는 손수건으로 입을 훔치면서 오빠의 시선을 피했다.

「너 임신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녀는 억지로 부정하려들었다.

「거짓말 하지마.」

「아닐거에요.」

그러나 말과는 달리 그녀는 계속 구토를 했다. 누가 보아도 임신한 여자가 심하게 입덧나 있다는것을 알 수 있을 정도였다. 그녀 자신은 물론 직감적으로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있었다.

「내앞에서까지 부인할 필요는 없어. 누구 아기냐?」

문자는 오빠가 잔인하게 생각되었다. 그녀는 눈물을 찍으며 고개를 밑으로 떨어뜨렸다.

「모르겠어요.」

「누구 아기인지 모르겠다는거냐?」

「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기어들어가 있었다.

「만일 그놈의 씨라면…」

두봉은 말하다 말고 신음했다.

그들 오누이는 한참동안 두거운 침묵 속에 빠져있었다. 두봉은 밥상머리에서 물러나 벽에 등을 대고 앉아 있었다.

「어서 식사 드세요.」

누이의 말에 그는 대꾸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섰다.

「가자.」

「어딜요?」

「병원에.」

그녀는 창백해졌다.

「저 혼자도 갈수있어요.」

「함께 가자. 너혼자 가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

앞장서 나가는 오빠를 보고 문자는 하는수 없이 뒤따라 나갔다.

〈독자의 광장〉

애국심과 국적

정 창 우
(토론토·돈밀거주)

요즈음 한국과 일본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 역사 교과서는 간단히 말해서 과거의 진실을 감추고, 사실을 왜곡하여 한국인이나 중국인에 대한 일본인의 민족적 우월감을 젊은세대에 가르치려는 얕은 저의가 깔려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젊은이들은 만일 일본이 외부의 침공을 받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설문에 대해 50%이상이 도망을 친다고 하는 한 여론조사가 나온 적이 있다고 한다.

젊은이들에게 우월감 내지는 애국심을 불어넣으려는 위정자들의 의도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6·25동란이 발발하자, 많은 학생들이 총을 들고 조국수호에 앞장섰고, 특히 재일교포학생들의 희생을 무릅쓴 참전은 애국심의 발로라 아니할 수 없다.

그후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전쟁때 미국시민인 많은 이스라엘 청년들이 참전한 것은 큰 감명을 주었으며, 그들의 거주지나 국적이 어디든간에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 잠재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지난해인가, 그전해에 이곳 교포학생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고국을 방문해서 여러곳을 견학하고 돌아보던중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 남산의 어떤곳에 갔었다고 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결과적으로는 부모들의 자녀교육의 소홀함으로 해서 한국말은 거의가 못하고, 영어로만 서로 대화하는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던 시민들이 한다는 말이 고국을 등지고 외국으로 떠나간 사람들의 자녀들뿐더러 저렇게 쉬이 모국어를 잊어버리고 모국을 방문, 견학한들 무슨 의의가 있으며, 모국방문을 도와준 정부측의 계획도 무모한 것이라고 대놓고 힐난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한 일부 모국시민의 비난이 옳다 그르다 속단하기 전에 일부시민의 의견이라면 한국 국민의 일부 여론이라고도 봐야하기에 신중히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민을 떠나 외국시민이 됐다고해서 누가 조국을 싫어서 떠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돈보따리를 싸짊어지고 떠난 일부 도피성 이민자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이 개인의 경제적인 이유에서 였을것이다.

얼마전 몇몇 인사가 한국정부를 비방하고 김일성을 극구찬양했을때 절대다수 교포들이 분개했음은 우리의 애국심에 의심할 여지가 없음을 보여줬다.

모국을 방문하는 학생들이라면 가능한한 우리말을 익혀서 모국의 실정을 직접 듣고 물어보기도 하여 더 실감있고 깊이 있는 모국방문의 성과를 얻어야겠고, 모국의 시민들은 단순한 힐책보다는 사랑이 깃든 충고적인 비판을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감명을 주어 조국에 대한 사랑이 스스로 싹 틀 수 있도록 유도해 줄 수도 있는 것이다.

평화스럽고 풍요한 사회에서 생활하다보면 개인의 행복만 추구하기 쉽고,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은 흐려질수 있다.

일본사람들이 교과서를 왜곡하여서까지 젊은세대에 국민의 우월감이나 애국심을 심으려는 이 시기에 교민사회나 고국정부에서 세계 곳곳에 거주하는 수십만 우리교포 젊은이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킬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없을까 하고 막연한 아쉬움을 갖게 한다.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 개업한
서울식품 서부지점
★배추김치·총각김치·파김치·부추김치·오이소백이전문
※ 좋은 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 : 243-9544
1391 WESTON RD

한국일보는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일간신문입니다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게 · 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여성신앙 수련회

강 사 : 남 정 숙 박사
(LA영생교회 김혜성목사 사모)

일 시 : 1982년8월27일(금)~29일(주일)
매일 밤7시30분,
주일 새벽기도 6시

장 소 : 토론토 중앙교회
(502 Bathurst St.)
(College & Bathurst)

연락처 : ☎ 961-8361(중앙교회 사무실)
☎ 745-5327(노회 여전도회 연합회장 이기선 집사)

주최 : 미주한인예수교 장로회 카나다노회

ANNIE'S 미용실

확장이전개업스페샬

과거 Willowdale 지역에서 Downtown 쪽으로 업소를 확장이전해서 여러분을 모십니다.

〈특별봉사기간〉 9월10일까지
◎ 40% OFF

—남·녀 커트
—머리 염색
—귀걸이 구멍뚫기
—남·녀 파마
—매니큐 전문
—얼굴맛사지, 노화방지
—신부화장
—잔주름제거, 여드름 치료

※차편이 불편하신분을 위해, 차편 제공 가능.

※불란서 고급화장품 취급

812 QUEEN ST. E.
☎ : 463-9071 (퀸 × 브로드뷰)

공 고

제63회 모국 체전 파견선수 등록 신청을 공고 합니다.

1. 대회명칭 : 제63회 모국전국 체육 대회 참가요망
1. 대회기간 : 1982년10월14일~19일 까지
1. 개최지 : 경상남도(마산·진주·진해 창해)
1. 경기종목 : 전종목
1. 신청마감 : 1982년8월27일
1. 장소 : 재 캐나다 체육회 533-9336
1. 신청방법 : 각 협회 책임자가 직접 제출한다.
1. 대표자 회의 : 1982년9월10일 오후5시
1. 대우 : 본회 재정 상 협조없음 단 체재비 및 단복은 본회에서 부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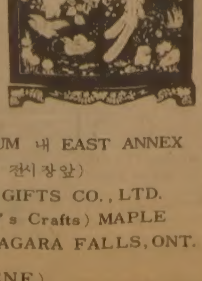
1982년8월23일

재캐나다 체육회
회장 이병권

각종자개제품판매

한국에서 수입된 각종 자개제품 일부를 CNE에서 전시 판매 중이오니 관람 바랍니다. 교민들에게는 특별 할인 해 드리고 있읍니다.

본점 취급품목 :
각형 TABLE
병풍(4폭, 6폭)
화대 각종 화병,
화장대, 문갑,
패물함 기타
장식품.



CNE 전시장 COLISEUM 내 EAST ANNEX
BOOTH 56 (나무조각 전시장앞)
YONG'S LINEN & GIFTS CO., LTD.
Port of East & Kang's Crafts) MAPLE LEAF VILLAGE, NIAGARA FALLS, ONT.
☎ : 593-7882(CNE)
(1) 356-9155(NIAGARA FALLS)

韓·나이지리아 頂上會談

全大統領、어제 라고스到着 友好증진 협의

【라고스=尹國炳특파원】 全斗煥대통령은 19일 하오1시30분(한국시간 하오9시30분) 아프리카巡訪 두번째 나라인 나이지리아의 수도 라고스에 도착했다。全대통령은 라고스의 무르탈라·무하메드 국제공항에서 나이지리아의 샤가리 대통령을 비롯한 3府要人및 외교사절들의 영접을 받았으며 영빈관에 旅裝을 푼뒤 대통령宮에서 샤가리대통령과 제1차 韓·나이지리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의 우호·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했다。양국元首는 20일밤 두번째 頂上회담을 가질예정이다。全대통령은 이에앞서 이날 상오10시40분(한국시간 하오4시40분) 첫 방문국인 케냐에서의2박3일동안의 공식일정을모두 마치고 나이로비 공항을 출발했다。全대통령은 출발성명을 통해 체재기간동안모이대통령을 비롯한 케냐정부 지도자및 국민들이 베풀어준 환대에 감사한다고말하고 양국이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위치를 재확인하고 앞으로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기로 다짐한것은 참으로 의의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18일하오 全斗煥 대통령이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교민을 위한 리셉션에 참석, 격려사를 하고있다。 【나이로비 (케냐) 18日聯合=韓】

"經協 定期협의·阿銀가입" "南北對話재개 努力 지지"

韓-케냐 공동聲明

全대통령과 모이대통령은 케냐출발에앞서 이날상오 9시(한국시간하오3시) 영빈관에서 작별회담을가진뒤 한국측의 金埈成부총리를 비롯한 공식수행원과 관계각료들이 배석한가운데 양국공동성명에 署名했다。全대통령일행은 이어 나이로비 국제공항에서있은 환송행사에참석한뒤 모이 대통령을비롯한 케냐3府요인및 외교사절 그리고 1백여 교포들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특별기에 올랐다。

全斗煥대통령과 모이 케냐대통령은 19일『개발도상국간의 협력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과의 협력에 못지않게 중요함을 확신하고 양국이 각자의 경제개발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교환하여 既存협력유대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히고『이러한 취지에서 양국대통령은 전문가와 기술자교환을 통해 교육·농업·축산업·수산업·제조업·의료·관광·과학기술분야에서 경제·기술협력을 확대、촉진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全대통령의 2박3일간의 케냐방문을 결산하는공동성명에서 이같이밝힌 양국대통령은 양국간 통상증진에 합의하고 민간 投資家에의한 합작사업추진의 중요함을 강조했으며『양국간의 협력확대분야의 모색에 관해 定期的공식협의를 갖는것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두나라 국가원수는 특히全文13개항으로된 이공동성명에서 현세계경제정세추이를 검토,『현 국제경제질서를 개편하기위한 南·北대화문제가 국제사회가 해결해야할 가장 시급한 문제의하나라는 데의견을같이했다』고 밝히고『개발도상국의 특수한필요와 이익을 고려하여 新국제경제질서수립을 목적으로 이미 제의된 포괄교섭이 조속히 개최되도록 선진제국이 비타협적 태도를 버릴것을 촉구했다』고말했다。

全대통령은 이 성명에서 개발도상국들간의 협력관계 증진을위한 한국정부의 노력、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사회발전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이 아프리카 개발기금의 회원국으로서 수행해온 역할을 설명하고 이러한 취지에서 대한민국이 가까운장래에 아프리카 개발은행의 회원국으로 가입、한국과 아프리카諸國사이의 실질적인협력을 한층 강화시키는데기여하고자하는희망을피력했다。

공동성명은 全대통령의 이번 케냐방문이 기존 우호협력관계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상호이해와 인적교류를 통한 한국과 케냐간 협력의 새시대를 개막했다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모이대통령이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주도록 요청、모이대통령은 이를 기꺼이 수락하고 答訪일자는 外交경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성명은 밝혔다。

"開途國결속 重要"

全대통령、케냐晚餐서强調

【나이로비=尹國炳특파원】 全斗煥대통령은 18일『아시아·아프리카의 모든 開途國간의 이해와 친선 그리고 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본인은 한국정부와 공식관계를 갖고있지않은 다른 아프리카국가와도 우호관계를 정립、같이 손을잡고 공동과제를 실현하는데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있다』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이날하오 이곳 영빈관대연회장에서 모이케냐대통령이 주최한 만찬에참석、답사를 통해『韓·케냐양국이 그동안 각자의 발전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서로의 무한한 잠재력을 교환하고모든분야에서 상호보완적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면 양국국민에게 분명히 번영의 새시대가 개화될것을 믿어 의심치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全대통령은 이에앞서 이날저녁 나이로비근교 사파리·파크호텔에서 姜錫在케냐주재大使가 주최한 교민을위한 리셉션에 참석, 이곳에 진출한 기업과 공관가족등 1백여명의 교민들을 접견、격려했다。

公職者재산등록 對象축소

朴총무처 "實名거래制추진에 맞춰"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케돼 있는 公職者재산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最小化하기위해 金融實名去來制추진에 맞춰 실시초기엔 대상범위를 축소키로 방침을 세웠다。

朴贊兢 총무처장관은 19일『공직자재산등록제는 공직자윤리법 제정당시의 여건과 현재의 여건사이에 차이가많이나 實名去來制의 정착을관망해가면서 추진키로 방침을 세웠다』고 말하고 재산등록 실시대상의 범위에 언급,『실시초기엔 최소화할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朴장관은 재산등록제가 실명거래제와 깊은 관계가 있으나 재산등록제를 실시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재산등록제의 실시에 필요한 공직자 윤리법시행령을 제정하는 작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산등록제실시시기에대해 朴장관은『공직자윤리법에 내년1월1일부터 실시케돼있는만큼 변함이없이 그때부터 시행할것이나 실시초기엔 대폭제한된 범위에서 시행할방침』이라고말했다。

한편 朴장관은 현재 진행중인 정부기능분석작업에언급『이와관련, 部處의統廢合같은 충격적인일은 없을것』이라면서『이작업은 이번 한번으로 끝낼성질의것이아니라 앞으로 계속해나가야 하는작업』이라고 밝혔다。

"外交고려 歪曲 조소」 수습"

日 自民黨외교부회 내주초 政府見解 밝히기로

【東京19日=宋孝彬특파원】 일본의 집권 自民黨은 19일 외교부회및 외교조사회의 연석회의를 열고 검정교과서의 왜곡부분을 재수정할 것인가의 여부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을 벌인끝에『교과서 문제는 국익을 포함, 자주적외교 관계를 고려하여 정부가 될수있는한 조속히 수습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앞서 自民黨문교 관계위원회가 18일 교과서 검정제도의 테두리안에서 조속히 수습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구체적인 방안을 회장단에 일임으로써 교과서문제에 대한 自民黨의 조정작업을 일단 끝난셈이다。

일본 정부는 自民黨의 의견조정에따라 외무、문부 兩者의협의하에 왜곡교과서문제에대한 수습방안을 작성、내주초 스즈끼 수상이나 미야자와 (宮澤喜一) 관방장관으로하여금 어떤방식으로든 재수정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일본정부의 견해를 밝힘으로써 외교문제화한 검정교과서 문제를일괄타결할방침이다。

외무성의 하시모또(橋本) 정보문화국장은 이날 외교관계위원회에서『검정제도는 국내문제이지만 그내용이 수백만에서 1천만명에이르는 피해를받았던 한국과 중국인이 관련된이상 그들이 그내용에 대해 발언하는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문부성의 후지무라(藤村) 교과서 검정과장은 이날 국회参議院 외무위원회에서 한국 중공등이 문제삼고 있는 교과서 검정내용과 관련『검정제도를 견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문부성의 견해와 별도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처음으로 분명히 밝혔다。

또 사쿠라우찌외상은『韓日공동코뮈니케와 日·中共同성명정신으로 되돌아가 교과서문제를 해결해야하며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바로잡는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거듭재수정을 강조했다。

15일동안 美최종案 이·레바논도 수락

【베이루트 18日AP·UPI=聯合】 필립·하비브 美중동특사는 18일 팔레스타인의 베이루트철수에관한 최종안을 제시,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합의를얻음으로써 74일간의 레바논위기에 돌파구를 마련하고 24시간내에 15일간에 걸친 철수작업이 개시될 것으로 밝혀졌다。

레바논 내각은 18일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을 오는21일부터 西베이루트로부터 철수시키기위한 미국의 계획을 최종승인하고 이스라엘도 이에 합의, 공식수락절차만 을남겨놓은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레바논내각은 이날 美·佛·伊등 3개국에 대해 오는21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게릴라들이 철수를 시작할수있도록 西베이루트에 군대를 파견해주도록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하비브특사와 샤피크·와칸 레바논수상은 두차례의 회담을 마친뒤 레바논 각의의 결정을 발표하면서『이스라엘도 PLO의 전면 철수계획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初中高 교과서 全面개편 추진"

民正、民族史觀 정립위해

民正黨은 현행 初·中·高校의 교과서내용중 植民史觀을 불식하고 民族史觀을 정립하기위해 우리교과서 내용의 전면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李鍾贊民正黨총무는 19일『초·중·고교의 국사·국어·윤리교과서등에는 아직도 植民史觀의 잔재가남아 있는부분이많다』고지적,『이들교과서를 民族史觀의 입장에서기술、자주의식을 고취시키고 민족정기를 살리도록 전면적인 교과서개정을 추진할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이어『民正黨은 이러한 교과서개정을 黨內에 곧 설치될 민족정기앙양특별기구를통해 추진할 방침이나他黨과도 협력할 필요성이있어 民韓·국민당에도 이계획을제의했다』고말하면서『교과서내용편찬에는 東學亂을「亂」이란 표현등 用語뿐아니라 檀君신화의 처리등 전체적인내용도 포함될것』이라고 밝혔다。

李총무는 이를위한 구체적 작업의 일환으로 국회文公委를 통해 國史공청회를 또한차례개최하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을 통해 우리국민의진로등 구체적사업을 추진토록 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들 작업을 통해 교과서내용개편이 마련되면 黨의정책으로 확정, 반영시키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李총무는 이와함께 각계전문가로 구성되는 민족정기앙양특별기구를 통해▲경제적인 韓·日관계의 새로운평가 ▲太平洋시대에 있어서의 한국과 日本의 관계등을 再照明하는 한편 정치·경제·사회·문화등 각분야에서 日本色요소를 추출하여 시정해나가는 작업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北韓주민 1명 歸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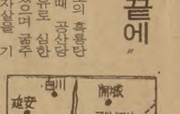
어제 國軍초소로 夜陰틈타 禮成江 헤엄쳐건너

"虐政·굶주림…自殺企圖끝에"

국방부는 북한주민1명이 19일 새벽1시께 황해도白川에서 예성강을 건너 서부전선 국군초소로 귀순해왔다고 발표했다。

귀순자는 이헌주씨(20)로 황해남도 백천군 문산리에있는 제5작업반 농장원으로일해왔다。

이씨는 평안남도의 흑룡탄광 노동자로 있을때 공산당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한 차별대우를 받아왔으며 굶주림에 지친나머지 자살을 기도했다가 미수에 그쳤고 그후백천의 제5작업반 농장원으로 추방되어 일해왔다。



이씨는 자유대한을 동경하던끝에 이날 빈 플래스틱 기름통을 타고 어둠이 덮인 예성강을 헤엄쳐 江華島서북방 15km지점의 국군초소로 건너왔다고 밝혔다。

이씨는 현대1개、조선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회원증1장과 북한동전 16개를 휴대하고 있었다。

국방부는 또 지난15일 강원도 華川군 북한강상류에서 표류하는 20대 북한민간인남자시체 1구를 인양했는데20일상오 판문점에서열리는 제468차 군정위 비서장회의를 통해 북괴측에 인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시체는 팔목으로 만든 팬티만을 걸치고 있었고 왼팔에 한글로「체육」이란 글씨와 러시아어로「스포르트」(체육)란문신이새겨져있다。

오늘 財務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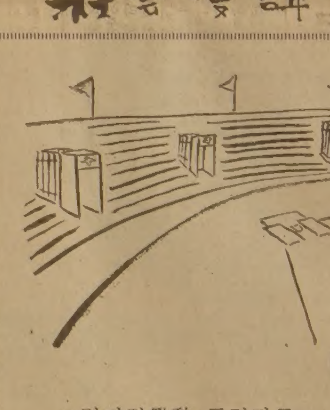
국회는 20일상오10시 財務委를 열어 정부로부터 6·28및 7·3경제조치의 배경과 補完策등에 관한보고를 듣고 질의를 벌인다。

재무위에서 民正黨측은 6·28및 7·3조치의 문제점등이 이미 黨政협의과정에서 충분히 보완됐다고 판단, 구체적인 시행계획등을 따지는한편 7·3조치에대해서는 충실한 보완장치를 마련할것을촉구하고 6·28조치에대해 더 중점적으로 문제를 제기할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民韓黨은 財務委전략을 마련키 위해 19일상오 총무단·정책위원·국회재무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實名制에 대한 黨論은 찬성하나 그실시시기도입은『金融去來實名化조치법안이 정부에서 나올때 결정짓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또 巨額예금자에 대해선 假名이든 實名이든간에 자금출처를 밝히도록 촉구키로 했으며 財務委에서는 특히 6·28및 7·3조치 마련과정에서의 졸속문제점을 추궁키로했다。

社會漫評



경기장亂動 근절키로…

議政同友會 豫決委員 3명선임

議政同友會는 19일 오는 정기국회의 豫決위원으로 林采洪(자산) 白樂基 金吉俊의원을 선임했다。

나이지리아 韓人會 서울五輪위해 誠金

나이지리아韓人會(회장 이봉연)는 88년 서울올림픽성금으로 4천3백달러(韓貨3백25만원)를 모금、지난15일 제27회 光復節기념식전에서 林東源駐나이지리아대사를통해 전달해왔다고 외무부가19일 발표했다。

地平線

한탄강줄기 漣川땅 全谷里에서 出土된石器는 우리에게도『前期舊石器』문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최근 저명한 미국의 考古學者인 존·D·클라크박사는 全谷里를 직접 답사하고 이遺物들을 매만져보면서 찬탄을 금치못하더라는 것이다。그는 이런 石器들을 보고나서 우리의 舊石器文化年代를 下限10만년前에서 上限 2백70만년前까지 이르는「前期舊石器」시대로 추켜올려 놓을 수밖에없다고 주장하였다。▼이로써 韓國에는 前期舊石器時代가 없었다고하는 通說은 또한번 뒤집히게될듯하다。클라크박사는 全谷里의 石器를 아프리카와 유럽(프랑스)에서만 발견되었던 아슐리앙·생고안文化期유물과 너무나 흡사하다고 보고있다。그래서 유럽, 아프리카뿐 아니라韓半島안에도 아슐리앙·생고안文化단계의前期舊石器文化가 꽃피었다고 추정하는것이다。世界의 考古學界를 놀라게 하리란것도 무리가아니다。▼昨年11월 忠北大에서「韓國古代史의 照明」이란 테마의 學術會議가 열렸을때 그곳의 李隆助교수는「舊石器時代라고하는 時期는 우리에게 확실히「잃어버린 時間」이었음에 틀림없다」고 말한 일이 있다。우리에게 舊石器時代가 있었다는 物證이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1933년이었다。이때 咸鏡北道 鐘城의 潼關鎭에서 舊石器유물이 나오기는 했으나 당시 日本의 植民地史學이 否定으로 일관하여 우리의 舊石器時代까지도 잃게한 것이다。▼우리나라의 國定敎科書에 舊石器時代가 실린것은 1974년이었다。그러고보면 우리 學界자체에도 문제가 없지않은듯 하다。더러는「植民地史觀」의 오염이 지적되기도했다。그러나1964년부터 10년간 公州石壯里의 유적이 발굴됨으로써 舊石器時代의 존재는 완전히 확인되었다。그후 石壯里뿐아니라 堤川의 점말동굴、清原두루봉 동굴、그리고 漣川 全谷里의 유물발굴등으로해 舊石器시대의 出土品을 두루 갖게 되었다。▼石壯里유적의 제4文化層서 나온「주먹도끼」등에서는 이미 우리舊石器에서도 아슐리앙傳統의 특징이 찾아진다고 學界에 보고된 일이 있었다。그러므로 클라크博士의 全谷 舊石器들에 대한 감동적평가는 韓半島에 前期舊石器時代가 있었음을 더욱선명히 해준셈이다。日帝때 잃은 舊石器時代、그리고 青銅器時代、鐵器文化의 存在도 근년에 와서 모두 우리學者에 의해 확인되었다。「잃어버린 時間」을 되찾은 것이다。잃은 歷史를 되찾는 일은 歪曲된 歷史를 바로잡는것 보다 더 중요하다 하겠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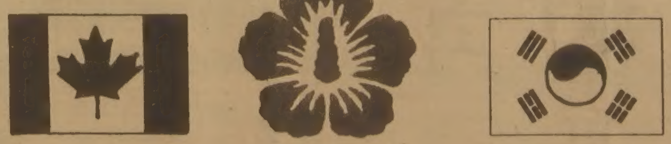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나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우리는
전두환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은
한·카 양국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의 확인과
재카 5만 교포에 대한 깊은 관심과 격려라고 확신
하여 환영의 뜻을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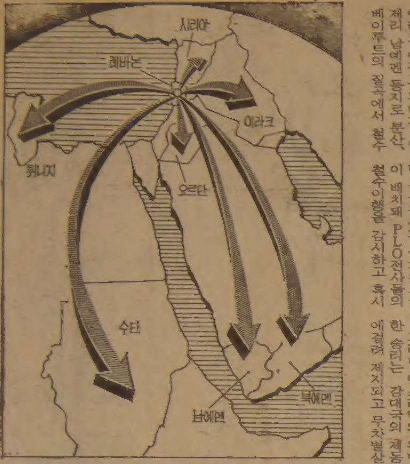
캐나다한인총연합회

PLO 레바논을 떠난다

이軍 退路열어줘 7國에 分散

「시리아」·「이」지원 두武裝세력 불씨로

수습길 찾은 「砲煙74일」



미국의 중동특사 필립·하비브의 끈질긴 중재로 74일간에 걸친 레바논위기는 간신히 수습돼 가고 있다。

전투에서 패배한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전사들은 중무기의 무장은 해제한 채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튀니지 알제리 남예멘 등지로 분산, 베이루트의 질곡에서 철수한다。밤낮 없이 西베이루트시가에 공습과 포격을 퍼붓던 이스라엘군대는 현전선에서 수마일 물러나 7천5백에 달하는 PLO게릴라의 退路를 열었다。그리고 그공백을 미군 8백、프랑스군8백、이탈리아군4백으로 구성된 국제평화군이 배치돼 PLO전사들의 철수이행을 감시하고 혹시 일어날지 모를 양측충돌을 제지하게된다。

PLO게릴라의 철수날짜는 21일께。국제평화군의 배치시기는 철수개시 직전으로 시간표가 짜여져있다。

PLO철수협상에서 가장 풀기힘들었던매듭은 국제평화군의 구성문제였다。

이스라엘이 미군의 숫자가 많아야 된다고 주장한데 반해 PLO는 그들에게동정적인 프랑스군의 숫자가 더많을것을 요구했다。

退路개방으로 그물에서 풀린 PLO게릴라가 철수문턱에서 마음이 돌변해버리면 국제평화군의 완충역할로 그들을 고스란히 넓은 바다에 다시 放生케된다는 점을 이스라엘은 두려워했다。

오늘의 集点

팽팽히 맞선 이견을 하비브는 ①프랑스군을 소부대로 줄여 미군과 같은 8백으로 하고 ②만약 철수를 거부하는 게릴라가 있다면 국제평화군이 강제력을 행사하되 ③필요하다면 이스라엘군대가 직접 소개작전을 펼수있다는 案을 제시, 힘들게 양측을 설득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전투에서 승리했다。그러나 정치 전쟁에서는 패했다。

지난 6월6일 레바논국경을 넘어 1만의 PLO게릴라와 난민의 목숨을 앗고 1만6천의 戰傷者를 내면서 순식간에 西베이루트의 문턱에 다달았을때 PLO는 영원히 이스라엘의 신경을 건드릴수 없는 불구가 돼 버릴 것 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는 강대국의 제동에 걸려 제지되고 무차별살상과 파괴에대한 각국의 질타가 쏟아져 이스라엘의 국제적 위신만 상처를입게 됐다。

이스라엘은 끝내 PLO로부터 『항복』을 얻어내지 못했다。시간이 갈수록 세계의 여론은 PLO편에 서고 비록 전투에서는 졌으나 정치적소득은 PLO쪽에 쌓여갔다。

PLO는 중무기의 무장은 해제당했으나 西베이루트 철수후 팔레스타인문제 협상에서 현지도층이 그주역을 담당한다는 보장을받았다。이번 레바논 전쟁은 팔레스타인 문제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이스라엘과 PLO는 戰場이 아닌 협상테이블에서 머리를 맞대고 다시 대결하게 되는 것이다。

PLO가 떠난 레바논땅엔 여전히 시리아군과 이스라엘군의 철수문제가 골치 아픈 문제로 남는다。

정부군2만의 약체 레바논에서 사실상 「국가속의 국가」를 이루고 모든 무장파벌을 압도하던 PLO가 떠남으로써 레바논은주도권을 다투는 무장세력간의 싸움으로 또한번 소란해질 우려가있다。

모슬렘좌익세력을 지원하는 시리아、기독교민병대를 지원하는 이스라엘은 결코 자신의 지지세력이 패배하는것을 방관하지않을 것이다。

모든 군대가 철수하고 「강력한 중앙정부」가 설것을 어느쪽에서든 구호로 외친다。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親이스라엘정권이 서야 철수하겠다는 주장을 아직 굽히지 않고 있다。시리아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PLO의 장래문제보다도 레바논의 장래는 더욱 어둡다。

종파와 인종、土豪의 세력들이 저마다의 무장세력을 거느리고 전국을 분할할거하고 있다。

파벌이 다르면 거주지역도 다르다。예컨대 綠色線(그린라인)을 경계로 동쪽에 기독교도、서쪽에 모슬렘이 거주하는 西베이루트가 좋은예가 되고있다。

바시르·게마이엘을 지도자로 하는 기독교민병대는 2만5천~4만의 중무장병력을 갖춘 레바논최대의 무장세력이다。돈과 무기는 이스라엘이 공급해 주고있다。지도자 게마이엘은 레바논대통령에 출마할 것임을 선언해놓고 있다。

이스라엘이 바라는 강력한 중앙정부란 바로 기독교민병대세력의 집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60만 모슬렘수니派를 배경으로 사에브·살람이 이끄는 세력과、1백만 시아派를 배경으로 나비흐·베리가 이끄는 세력등이 맞서고 있다。이들은 기독교勢力의 정부·군대지배를 종식시킬것을 선언해놓고 있다。

레바논의 종교 정치 土豪의 무장세력은 모두 40여개에 달하고 있다。

이스라엘、시리아의 입김이 작용하고 이들 무장세력들이 주도권을 다투게되면 레바논은 75~76년의 내란과같이 걷잡을수 없는 무정부상태로 빠져들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레바논의 평화는 잡다한 파벌이 이스라엘과 시리아등의 관련국가와 그들사이에 받아들여질수있는 어떤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레바논의 정부의 권력구조는 대통령이 최대의파벌인 기독교 마론派, 수상은 모슬렘, 국회는 5대4로 기독교가 우세하게 구성돼 있다。기독교도는 결코 현재의 권력기구의 우세를 놓치지 않으려는 결의에 충만해있다。

PLO의 장래와함께 레바논의 정세는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이다。

【崔相鎬기자】

◇PLO승리의 V字 레바논국회의사당 근처의 검문소에서 18일 3명의 팔레스타인 대원들이 PLO旗를 세워둔채 두손가락으로 승리의 V字를 그려 보이고있다。이스라엘軍은 19일 예정된 레바논국회의 대통령선거를위해 17일 이지역에서 철수했다。 【베이루트18日AP電送=聯合】

교과서 歪曲 몰고온 日本의 実相 <11>

軍國化의 기도

보수右傾득세 평화헌법 改正

防衛白書에까지 愛國心강조해 注目

【東京19日=宋孝彬특파원】주일한국대사관앞에는 철망으로 둘러싸운 데모진압용 경찰버스가 밤낮으로 상주、경비하고있다。

이들 일본경비경찰들은 한민통과 베트콩등 反韓단체들이 한일간의 문제가시끄러울때마다 대사관으로 몰려와 데모를 벌이기때문에 이들이 대사관으로로침입하지못하도록 철통같은 경비를 선다。

이렇게 삼엄한 경비망을 펴고있는 駐日외국공관은 한국대사관 말고 주일소련대사관이있다。한국대사관과 그리멀리 떨어져있지않은 소련대사관앞은 물론들어오는 진입로마다 장갑차처럼생긴 데모방비용 경찰버스가 상주、극우단체들이 매일처럼 몰려오는 차량데모를 저지하고있다。

한국대사관앞에서 데모하는단체는 좌경 정당사회단체인데 반해 소련대사관앞에서 군가를외치며 일장기를 휘두르고 차량데모를 하는 집단은 극우단체인것이 종래의 관례였다。

그러던 것이 교과서문제가 터지자 소련대사관앞에서 데모를 벌이던 우익단체들이 지난4일부터 한국대사관에 몰려와 연일 反韓데모를 벌이고있다。

『일본교과서에서 한국에 대해 나쁜말을 쓴 대목이어디냐、한국은 왜 일본교육노조의 앞잡이가 되려고 하느냐』고 고래고래 확성기로 외치면서 한국에 대한 비난을 퍼붓는다。

일본 문부성이 침략을 미화하고 皇國史觀에 입각、일제군국시대를 합리화하려는 세력은 이들 극우 단체를 비롯하여 집권 자민당에 깊이 뿌리박혀있다。

親韓파의 중진들과 강경파의원들은 과거 일제식민정책에 대한 죄의식을 갖고있지 않다。

한일의원연맹의 한 중진의원은 『대륙침략이나 한국통치가 서구의 식민지쟁탈적이 한창인 시대의 유물이다。

물론 대륙침략과 한국통치를 잘했다고는 할수없으나 그것이 그 시대의 불가피한 조류였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들의 의식속에는 침략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없는 것이다。오히려 낙후된 아시아 민족을 계도하고 근대화시켰다는 자부심 마저 지니고 있다。

이런 바탕에서 구보다(久保田)前외상의 망언이 튀어 나오고 마쓰노국토청장관의 망언이 계속되는 것이다。

親韓파의 거두인 기시(岸信介) 前수상은 대동아전쟁을일으킨 도오조(東條英機) 내각의 군수차관을 지낸 A급 전범자라는 것은 세상이 다아는 사실이다。

85세의 기시는 「자주헌법제정국민회의」의 회장을 역임、평화헌법개정론의 최선봉장이 되고있다。

1969년 발족한이 국민회의는 80년부터 일본사회의 우경화에 힘입어지방의회에서 개헌결의를 하도록 추진했다。

이 개헌운동에 참가한단체는 국제승공연합회、일본郷友연맹등 우익단체를 비롯하여 「일본藝養士회」 佛所念心會등 각분야에 걸쳐 10만명의 회원을 갖고 있다。

자주헌법제정국민회의이외에 개헌추진세력으로 자민당의원으로 구성된 「자주헌법既成의원동맹」이 있다。중의원 제1의원회관 1층에 자리잡은 이자주헌법 기성의원동맹은 회장에 역시 기시 前수상을 추대했다。

기시씨는 A급 전범자로 패전이 되자 일체의 공직에서 추방됐으나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로 정계에 복귀한뒤 평화헌법 개정을 들고 나왔다。

80년 중·참의원 동시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자 일본 사회의 우경화가 심화됐고 이에따라 자주헌법개정론과 군비강화론는 때를 만난듯 표면화했다。

헌법개정을 외면해 왔던 다나까(田中角榮) 前수상까지도 81년 자주헌법 기성의원동맹에 가세했다。

다나까 전수상은 81년 9월3일 다나까파 청년당원연수회에서 『일본은 현행헌법을 예지와 노력으로 소화、정착시켰다。사람들은 풍요해지면 제멋대로 하려든다。그러기 전에 일본에 맞는 자주헌법을 만들려는 노력은 당연하다』고 개헌론에 맞장구를 쳤다。

자민당 제1파벌인 다나까와 기시추종세력간 제휴는 평화헌법개정론을 급진시켜 자민당의 黨案으로 입안하기까지 했다。

자민당은 지난 1월 黨대회에서 평화헌법 개정을 黨대회 선언문에 채택했으며 이에 따라 자민당 헌법조사회는 지난 3월 개정안을 마련、침략전쟁을 영원히 포기한다는 일본헌법 9조2항을 삭제하고 天皇의 정부관여에 길을 터주는 개헌초안을 마련했다。

평화헌법 개정작업과 함께 군사대국화로 점차이행되고 있음은 두말할필요가 없다。

일본이 미국의 방위증강압력에 못이기는척 밀려가면서 착실한 군비증강에 나서고 있는것이다。

81년의 방위비는 2조4천억엔(96억달러)이며 82년에는 1백억달러를 넘어 세계제6위의 방위예산을 갖는다。

일본사회가 보수우경화로 크게 기울어짐에 따라 81년의 방위백서에 애국심교육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정신동화라는 항목에『일본국민이 지켜야 할것으로 국가의 독립과 명예、개인의 권리와 자유、국토와 가정、문화전통、민주주의、풍요한사회』를들고 『나라를 빼앗기면 국민에게 자유를 보장할 국가체제를 잃어버린다』고 강조했다。

말하자면 자유를 사랑하자면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극히 당연한 말을 쓴것이지만 이것이 방위백서에까지 올랐다는데 주목해야 할것이다。

교과서의 왜곡은 이런사회적 배경하에서 나타난것이다。검정교과서의 왜곡대목의 문자를 몇자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본사회가 군사대국화로 한발한발 내디디고 있는데 참다운 문제가 있다。〈끝〉

◇아끼히도 일본 황태자 부처가 지난 15일 일본 패전37주년 기념일을맞아 東京의 한 神社를 참배하고 있다。

海外토픽

日閣僚、議事堂정원에 放尿

한寫眞잡지서 문제장면폭로 波紋

일본인들에게서 방뇨행위는 흔히 볼수있는것이긴 하지만 최근 정부의 한 각료가 의사당정원에서 방뇨했다해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고。

일본신문들은 이사건을 이른바 「방뇨사건」이라 부르고 있는데 한사진잡지는 바로 이각료가 의사당정원의나무에다 방뇨하는 문제의 장면을 찍어 잡지에 게재하고는 그가 현각료이자 집권 자민당내의 영향력있는 인물인 나까가와·이찌로의원이라고 폭로。

또 제1야당인 사회당은 나까가와의원이 속해있는 중의운영위원회에 『현직 각료가 그러한 행위를한것은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킨것』이라는 내용의 항의각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자민당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는것。 【東京=UPI】

레바논서 서로 다른길 걷는 두 노벨평화상 受賞者 베긴과 테레사修女

「難民의 어머니」로 불리는 테레사수녀(71)는 지난15일 東베이루트부두에 도착한 즉시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나섰다。

테레사수녀는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게릴라들과 이스라엘군이 대치하고있는 전선으로 구호차를 몰았다。

아무도 이할머니의 앞을 가로막지 못했다。할머니는 西베이루트의 회교사원과 병원에서 폭탄에 맞아 다치고 굶주림에 찌쳐 쓰러진 팔레스타인 어린이 37명의 손을 꼭잡고、자신이 2년전세운 東베이루트의 알·라비학교로 구출해냈다。

테레사수녀가 팔레스타인 난민지역에 있는 한병원을 찾았을때 이스라엘의 포격으로 대파된 건물안에는 의사와 간호원들이 戰禍를 피해 떠나 버린채 직원몇명만이 4백명이넘는 환자를 지키고있었다。테레사수녀는 異敎徒인 그들에게 종교의벽을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줬다。

◇테레사수녀

◇베긴수상

테레사수녀는『오래도록이곳에머물것이다。어린이를 잃은것은 이세상모든괴로움의 시초』라고 말했다。

79년인도캘커타에서빈민을위해몸을 바쳐온 공로로 노벨평화상을받은 테레사수녀에게 레바논여성협의회는 베긴이스라엘수상이 받은 노벨평화상을 박탈하는 운동에 참가하라고 권고했다。

베긴수상은 테레사수녀보다 한해먼저 캠프데이비드협상체결을통해 중동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았었다。

노벨평화상수상자인 테레사수녀와 베긴수상。그들은 레바논전쟁에서 만났지만 너무나 서로 다른 길을 걷고있는것이다。

레바논여성협의회는 『테레사수녀처럼 올바르게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포기하여 노벨평화상의 가치를 전범자와 함께 누리는 일이 결코 없도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테레사수녀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전쟁을 일으킨 사람과 그전쟁의 상처를 돌봐주는 사람。레바논사태는 노벨평화상 수상위원회에 깊은 곤혹을 안겨주고있다。【崔海雲기자】

메아리

마슈페르

프랑스의 필리프·마슈페르상원의원이 의문의 자살을 했다는 보도가 있다。한낱 남의 나라 국회의원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나라와 관계가 있는 인물이어서 관심이 간다。

마슈페르의원은 현 프랑스 사회당정부의 對韓정책결정에 있어서 큰 몫을 차지해온 사람이다。그는 상원의 외교분과위원회 간사였을뿐 아니라 미테랑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이전부터 외교문제담당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미테랑에게 조언을해왔다。미테랑이 대통령이 된후에는 특히 韓半島문제를 맡아왔고 작년12월과 금년1월에 걸쳐 대통령 특사의 자격으로 南北韓을 번갈아 방문한 것은 이례적이었다。

그때까지 마슈페르의원은 프랑스내에서 親北傀의 주도적 인사로알려져 있었다。상원내에 있는 北傀연구클럽의 회장이었을뿐 아니라 특사로 간것까지 합치면 평양을 4번이나 다녀왔다。그중 한번은 작년초 미테랑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얼마전에 평양을 방문했을때 수행한것이었다。파리에 있을때 가끔 北傀의 무슨 사절단같은 것이 오면 센江 유람선인 바토·무슈에 태워 안내를하는 그를 볼수 있었다。

평양과는 그렇게 밀접하면서도그가 서울에 온것은 금년 특사자격으로 방문한것이 처음이었다。우리로서는 프랑스 정부의 對韓정책에 결정적 역할을 할 특사가 親北傀인사인것에 얼마만큼의 핸디캡을 안고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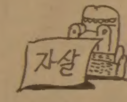
금년 1월 마슈페르의원이 서울에서 돌아온 바로 이튿날 나는 駐佛특파원의 자격으로 그와 회견을 했다。혹시나 싶었지만 그는 회견제의를 쾌히 응낙해주었고 먼 여행의 피로도 풀지 않은채 그날이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파리교외 베르사유 부근의 우아유에 있는 자택에서 맞아주었다。그는 1977년까지 파리 제10대학에서 역사학교수로 있던 사람이지만 외양은 좀 군인같은데가 있었다。응접실에 놓인 사진들 가운데는 평양에서 찍어온 것도 보였다。그는 정중했고 답변은 신중했다。南北韓 문제에 관해서는 어느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평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역력했다。

그리고 아직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이라면서 결정적인 답변은 피했다。

그러나 서울의 방문이 그에게 인상적이었다는 인상을 그에게서 얻을수있었다。그는 서울의 활기와 발전상을 놀라와했다。그는 역사학자로서 한국의 빛나는 문명에대해 존경심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분단된 한국에 대해 동정심과 이해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남북한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물론 경제적、사회적제도이지만 자기가 보고온것은 오히려 공통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박물관을 구경했는데 그것은 수천년의 같은 전통에 속하는것이었고 양쪽의 시민들은 서로가 상대쪽에 가지는 호기심이 공통점이더라면서 南北韓이 같은 민족임을 재확인했다는말을 되풀이했다。그는 한국민전체에 대한 존경과 우의로 한반도가 언젠가는 통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고통일이 된다면 한국은 세계의 經濟强國이 될것이라고 고무시켰다。

마슈페르의원은 특사로 왔다간 바로 얼마후인 지난 3월 세미나 참석차 서울을 다시 다녀갔고 금년 가을에는 미셸·조베르 대외통상상과함께 또 한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있었다。발을 안디디던 땅을 한해에 3번이나 연거푸 찾아온다면 적어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새로와져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아직 그의 자살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있지만 혹시 정치적동기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것도 수사의 한 방향인 모양이고 외신들도 그가 南北韓 특사였다는것을 강조하고 있다。北傀의 승인여부를 놓고 프랑스의 對韓입장이 미묘한 이때 마슈페르의원의 죽음은 당혹감을 갖게 한다。



金聖佑
〈編輯委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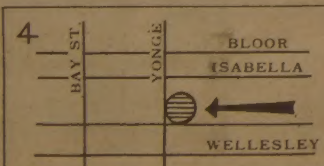
江戸前 太鼓寿司

어제 오신 분이
또 오십니다

쓰시(김밥) 전문

일본음식중 김밥만 전문으로 하고 있읍니다.

밤 12시까지 OPEN하오니 일차 왕림해 주십시오.



TAIKO SUSHI
607A YONGE ST.
☎ : 921-6408

이전개업인사

의사 왕운린

(카나다의사면허와 미국 미시간주 의사면허 소유)

금번 8월3일부터 600 SHERBOURNE ST. (at Bloor St.)의 ROSEDALE MEDICAL CENTRE 402호에 이전 개업 하였읍니다.

⊙건강상담, 종합진찰,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X-레이, 심전도 울트라사운드검사, 산전 산후건강관리및 분만, 소아건강, 가족계획 상담등.

※ Doctor's Hospital Active Staff Member로서 입원치료 가능합니다.
※ 응급및 중환자분은 Doctor's Hospital 응급실로 오시면 됩니다.

*근무시간 : 월~금 : 오전 10~오후 7시 , 토 : 오전 11~오후 3시

☎ : (B)968-1543 (R)363-9196

Cooper Furs

밍크특별여름세일

밍크(모든 쉐이드), 비버-여우-라쿤-코요트-페르시안 양등을 이윤 없이 판매함.

비 정상적 가격
40% 할인

40년 전통, 수리, 재 재단, 세탁포함.

일요일은 예약자에 한해 영업함.

1978 Weston Rd. 정성주
(Lawrence 1블록 북쪽)
☎ : 241-8091, (R)276-4373

新風土記

民俗村 <京畿 龍仁>

傳統재현 좋지만 模造보다 原型 보존을

鄭鎭圭 >詩人<

본시 용인은 그렇게 잘사는 고장이 아니었다. 농사도 잘 되지가 않았다. 넓은 평야가 없기도 하지만 이 지방특유의 기온이 그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위도상으로는 서울보다 남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高地기온이라 여름에는 섭씨 2도 가량이 높으며 겨울에는 또 2도 가량이 반대로 낮다는 것. 별다른 특산물도 없었다. 예부터 숯을 구워 팔았고, 이지방특유의 인삼, 소위 龍蔘이라는 것이 있어왔다고 하지만 산업화할 정도는 아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곳의 낚시터들로해서 낚싯대 제조업이 성했고 이는 양적으로 전국의 60%이상, 질적으로도 이곳의 것을 따르지 못해왔다고하지만 별반 크게 도움이 되는것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때문에 龍仁은 생활권을 인근의 水原과 서울에 대고있어 발전의 진도가 늦어질수밖에 없었다는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지고 있다. 우선 용인을 통과하는 경부·영동의 고속도로가 연장 40·4㎞에 이르고있고 인터체인지만해도 6개소가 되고있다. 이를테면 닫혀있던 용인에서 열려있는 용인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고있는 셈. 경관을 해칠뿐아니라 아름다운 자연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문제점도 없지않으나 그동안 들어선 공장들만해도 경방, 태평양개발, 서울우유, 녹십자등 약 2백70개업체. 그중 稅制상 혜택을 받는 새마을공장이 44개소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것이 특징.

널리 알려진 韓國民俗村이 또한 이곳 器興面 甫羅里에 자리잡고 있다. 총22만평. 우리의 전통 민속을 오늘에 재현시키고 특히 외국인들에게 우리의것을 알린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은 장소이긴 하다. 그러나 이런 模造展示場보다는 원형 보존에 더 신경을 써야할 것같고 또 일부업자의 부당 이득이 눈살을 찌푸리게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서는 아니될것같다.

內四面 南谷里 4백50만평의 대자연 속에 위치한 自然農園도 마찬가지다. 간김에 둘러보자고해서 그곳을 찾았으나 피곤만 겹쳐 돌아서야했다. 1일평균 5천명의 관광객이 들고있다는 이야기였는데 글쎄, 업자에겐 즐거운 비명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라할 수 있겠지만 겪어야하는 많은 불편들이 거기에도 예외없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곳곳에 벌어져 있는 골프장도 문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돈을 뿌리고 가는지는 모르나 우선 너무 많지 않느냐는 인상이다. 수원, 양지, 명성, 오산, 그리고 한성, 효성등이 또 개장을 서두르고 있다.

골프는 일종의 스포츠고 중요한 사교의 가교가 될 수 있다고도 하지만 <글쎄, 아직 우리 형편에―>란는 인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고 좋은 농지가 그로 인해 훼손되는 경우는 없을지 의문스러웠다.

또하나 요즈음의 龍仁의 면모를 새롭게 해주고 있는 것은 많은 大學들. 경희대, 외국어대, 경기대, 명지대, 강남사회복지대등이 이미 새롭게 들어섰고 경찰대, 체육대, 이숭탐대등이 또 들어설 채비를 차리고 있다. 분명 이들 大學들이 새로운 문화의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지만 이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용인 자체로서도 연구해 두어야할 일이라고 보아졌다.

아뭏든 龍仁은 요즈음에 들어 경기도내의 어느지역보다도 뛰어나게 재정자립도가 높아져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었다. 인구도 지난72년도의 9만7천명에 비해서 현재 14만명으로 급상승해가고 있었다. 읍소재지의 구획정리사업도 끝내놓고 있었고, 上水道시설도 이미 착수해서 용인읍을 비롯한 백암, 신갈지역등에서 한창 공사가 진행중이었다. 풍덕천에서 성남골으로 이어지는 길, 남리에서 안성으로 가는길, 마평리에서 양지로가는길등 곳곳에서 포장공사가 또한 벌어지고 있었다. 분명 요즈음의 龍仁은 살아 움직이고 있는듯한 인상이었다.

<死居之龍仁>의 그 墓所로서의 고장이 아니라 <살아 용인>의 장사는 고장으로서의 발돋움이 어느 고장보다도 뚜렷했다. 그러나 이런때일수록 본래의 龍仁을 잃지않도록 자중해야 하는법. 이곳용인전체가 금년부터 국토이용 관리법에 묶여 서울의 공장들을 군당국은 안타깝게 여기는 눈치였는데 잘못된 생각이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용인에는 가령 李仁寧씨 (용인읍거주) 같은 경우처럼 홀로 龍仁의 문화 유적들을 발굴해 내고자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 다행스러웠다.

지금까지 발굴된 것을 가운데 대부분이 그에 의해서였고 최근에도 그는 아직 미확인 상태이긴 했으나 원사면 문수리 문수산 기슭에서 특이한 양식의 磨崖佛을 찾아내 고증에 열중하고 있었다. 높이는 2m70。三尊佛 가운데 主尊佛이 없고 옷몸이 裸身으로 되어있는 이 磨崖佛은 西域風으로 고려것이 아닌가 추정된다는 그의 이야기였다. 이제 새롭게 살아 움직이고 있는 오늘의 龍仁, 제발 화발통처럼 벌어지는 것만을 좋아하는 요즈음의 풍조로부터 이들은 극복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발길을 옮겼다.

◇새롭게 변모하고 있는 龍仁。말끔히 구획정리 사업이 되어있고 곳곳엔 힘찬 움직임이 있다。그러나 재원확보에만 급급해서 자경연관을 해쳐서는 안될 일이다。

鄧小平의「實用정권」
後繼체제 정립

12일 앞둔 中共「12全大會」

뉴스診斷

朴永喆 외신부기자

올 하반기의 중공政局은 상당히 부산하게 움직일 것같다. 9월1일에 중국공산당 제12기 전국대표대회(12全大會)가 시작되고 곧이어 금년안으로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 5차전체회의가 소집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중국공산당의 전당대회격인 12全대회에서는 당헌개정과 새로운 중앙위원선출등 黨기구개편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중공정권의 의회격인 全人代전체회의에서는 역사적인 중공의 4번째 개정헌법이 채택될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당헌개정은 毛澤東이 죽은후인 77년8월에 열렸던 11全대회때 채택된 당헌에 남아있는 좌익적 요소를 좀더 씻어버리는데 주안점을 두고있으며 당기구개편은 현재 정치국이 실권을 쥐고있는 당내권력구조를 개편, 중앙위원회와 중앙기율검사위의 기능을 강화하여 신설될 중앙자문위원회와 함께 三頭體制가 당을 이끌어 나가게 될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실무부문에서는 서기처의 기능을 확대강화, 다른 나라의 공산당체제에서 보이는것처럼 총서기중심제로 나아갈것으로 관측되고있다.

서기처의 강화는 80년2월11全5中全會에서 서기처가 부활되고 胡耀邦이 총서기를 맡아 일반행정업무를 관장하면서부터 이미 예견되어왔던 일이다.

또 鄧小平은 80년8월 정치국확대간부회의에서 당기구개편에 대해언급, 당헌개정및 3개감독위원회의 구성의사를 밝힌바 있으며 80년12월의 鄧의 발언과 비슷한 제안이 정치국상무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부결되기도 했다.

중앙자문위의 신설은 물론 고령간부들을 정치일선에서 자연스럽게 배제하려는 의도에서 나온것으로 지난5월 단행된 국무원개편때 국무원고문제도를 신설, 나이많은 부수상들을 수용한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자문위에 속할 대상은 일차적으로 부주석단및 정치국원의 고령자들이다.

당주석 胡耀邦은 최근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 가운데 5명이 고령자이거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밝힌바 있다.

胡가 말한 5명은 최고령자인 葉劍英을 비롯, 앓고있는것으로 알려진 李先念및 鄧小平 陳雲 華國鋒등을 지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鄧小平의견제세력인 華國鋒이나 葉劍英 李先念등이 이번 기구개편에서 완전히 정치일선에서 물러날 것인지 여부는 속단할수 없다.

최근 홍콩에서 발행되는 明報는 12全대회에서 華國鋒이 부주석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보도했고 혹은 부주석제및 정치국 자체가 폐지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은 되지않고 있다.

지난6일 열렸던 7中全會에는 7명의 주석단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방영되었으며 대회가 끝난 후 발표된 성명은 이례적으로 胡耀邦주석및 葉劍英 鄧小平 趙紫陽 李先念 陳雲 華國鋒부주석등 주석단 7명이 회의를 공동주재했다고 발표했다.

이제까지 黨중앙전체회의를 주석단 모두가 함께 주재한 일은 처음있는 일이다.

이같은 발표는 葉, 李, 華등이 鄧小平派의 정치노선에 적극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임과 동시에 아직까지도 이들이 완전제거될만한 단계에는 이르지못했으며 12全대회에서 모종의 타협이 또다시 이루어질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을 시사하고있다.

한편 중앙위원 2백1명과 후보위원 1백32명은 대폭교체될것이 분명하다.

교체원칙은 ①文革때 입당하여 문혁활동에 적극 참가한 造反派와 ②黨派、徒黨근성이 있는자③폭력 파괴행위자및 경제사범 등 소위「三種人」은 기본적으로 배척될 것이며 고령자도 물론 이번 기회에 축출된다.

6일 열린 7中全會서 이미 91세인 정치국원 劉伯承과 여성당원중 최고령자인 중앙위원 蔡暢(82·경제전문가·李富春의 미망인)이 신병과 고령을 이유로 자진은퇴했다는 치하문을 발표, 고령자들의 자진은퇴를 은근히 유도하는 듯한 자세를 보였다.

政治局 권력축소…諸問委를 신설

中央위원 實用派기용 대폭 개편

알려진 바로는 중앙위원의 3분의 2가량을 50~55세의 신진세력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이같은 권력기구의 개편이 鄧小平의 은퇴전에 후계체제를 굳히고 현대화정책을 적극추진할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려는데 있음은 물론이다.

이렇게 되면 鄧派는 현재 정치국레벨에서는 다수를 점하고 있지만 중앙위원회 레벨에서는 소수파인 현상을 탈피하고 명실공히 實權을 장악하게된다.

12全대회에서 또하나 주목되는 변화는 鄧小平 자신의 향방이다.

鄧의 정치적 장래는 세가지로 추측해 볼수있다. 하나는 신설되는 중앙자문위의 주석을 맡는 것이다. 현재 중국공산당의 권력구조는 黨중앙위와 정치국, 서기처를 일선행정부서로 하여 여기에 중앙군사위와 중앙기율검사위가 뒤를 받치고있다. 그러나 앞으로 기구가 개편되어 상무위, 자문위, 기율검사위등 3개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다면 黨주석 胡耀邦과 국무원총리 趙紫陽의 胡-趙체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鄧小平이 자문위원회를 맡는 것이 적격이다.

두번째는 아무런 변동없이 그대로 현위치를 고수하는것.

즉 현재 보유하고있는 부주석 및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군사위주석등의 實權을가진 직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자문위주임은 원로인 葉劍英에게 양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실현되기 어려울것같다. 鄧小平은 이미 명목상이긴하지만 제1선에서 물러나 제2선으로 앉은지가 오래이며 자신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다른 간부들의 은퇴를 강요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를것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세번째방법은 鄧小平이 이번 당대회에서 모든 공직을 털어버리는 것이다.

이는 곧 鄧이 개정헌법에 의해 15년만에 부활되는 국가주석에오를 예정이라는것을 의미한다.

鄧小平은 그동안 국가주석 자리에 앉는것을 한사코 사양해왔다고는 하지만 이제 大局을 장악했다고 생각한다면 못이기는체 국가주석자리에 올라앉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鄧의 장래문제와 관련하여 간과해서는 안될것은 黨중앙군사위와 정치협상회의의 앞날이다.

특히 중앙군사위에 대한 언급이 이제까지 전혀 없는것은 약간 기이하기조차하다.

4백만대군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막강한자리인 군사위주임은 과거 당주석이 겸임해온것이 상례였지만 작년6월6中全會이후 12全대회서 상당한 당기구개편이 있을예정이라면서 이같이 중요한 군사위에대해서는 鄧小平의 지위에변동을예측할수있는 시사가없다는점은 국무원에서 시작된 체제개편작업이 현재 黨에까지만 도달했다는것을 뜻한다.

즉 군부에 대한 정비작업은 12全대회와 全人代전체회의 이후로 일단 밀어두려는 의도인 것으로 해석할수있다.

한편 黨기구와는 조금 별개의 것이긴하지만 정치협상회의의 앞날도 중요하다.

鄧小平은 11全대회에 뒤이어 78년2월 제5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구성된 이래 줄곧 주석직을 맡아왔다.

중국공산당을 포함, 중국내 각종 政派의 모임으로 중공정권을 탄생시킨 母體이기도한 정치협상회의는 黨대회나 全人代의 막후에서 중공정치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鄧小平이 그동안 당부주석이나 국무원부총리등 비교적 낮은 직함를 가지고서도 중공의 최고지도자로 군림하며 중공정국을 한손에 주무를수 있었던 것도 바로 政協會議 주석이었기 때문이다.

즉 모든 정치적 행동은 우선 政協에서 이야기되고 여론을 형성하는등 충분한 사전공작을거쳐 부드럽게 진행된다.

鄧小平특유의 사전공작은 이번 黨대회를 앞두고도 국내외 각부문에서 여실히 나타났다.

최고의 걸작은 17일 北京-워싱턴에서 동시 발표된「제2의上海공동선언」.

72년의 上海공동선언과 79년美·中共국교정상화선언이후 계속 마찰을 빚어온「하나의 중국」논쟁에서 중공측에 다소 유리한 결과가 나온것으로 평가되고있는이 공동성명은 12全대회를앞두고 鄧小平의 입장을 크게 강화해줄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동안 美, 日과의 국교정상화에따른 경제교류를 바탕으로 경제현대화정책을추진해온 중공의 實用派정권은 서방일변도의 노선을 걷는다고 하여 국내외에서 상당한 반발을 받아왔었다.

최근 중공이 소련은 물론 미국마저 초강대국으로 한데 몰아붙이며 제3세계국가임을 다시 강조하는듯한 움직임을보인것도 對外用이라기보다는 차라리 國內用의 의미가 컸던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있다.

교과서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에 대해 계속 강경자세를 보이고있는것도 12全대회를 앞둔 포석으로 받아들이는 견해가 많다.

또한 12全대회가 9월1일 열릴것이라는 중공당의 공식발표가 약한달전에 나왔다는 사실도 주목할만하다.

과거 중공의 각종 정치집회는 철저히 베일속에 가려져있어 집회가 끝나고 며칠지나서야 결과가 발표됐었다. 이런 전례를 깬 대회개최사전발표는 중공당국의 자신감을 나타내는것과 동시에 중공정치가 격동기를 지나 안정권에 들어섰다는것을 의미한다.

鄧、국가主席자리 유력

自信있게 政治집회 사전발표

많은 중공관측통들은 현재 鄧小平은 과거 어느 지도자들보다도 강력히 중공정국을 장악하고 있는것으로 보고있다.

비록 자신은 일선에 나서지 않고있지만 胡耀邦-趙紫陽등 자기사람들을 실권적 위치에 배치, 명실상부한「實權派」가 된것이다.

따라서 커다란 이변이 없는한 이번 黨대회는 타임-스케줄에따라 부드럽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있다.

그러나 중공정치는 아직도 너무 많은 변수가 작용하고 있기때문에 결과를 쉽사리 예측할 수는 없다.

11全대회이후 5년동안 鄧小平정권은 파도기의 혼란을 극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나하나 政敵들을 순서에 따라 배제해왔지만 반대세력의 힘은 아직도 만만치 않다.

4인방 체포에 뒤이어 80년2월 5中全會서 汪東興 吳德 紀登奎 陳錫聯등 小4인방을 축출했고 80년9월에는 華國鋒을 국무원총리에서 몰아내고 81년6월 6中全會서는 華를 다시 당주석에서는 끌어내렸지만 華國鋒을비롯, 葉劍英 李先念등 反鄧세력은 7中全會서도 의연히 건재한 모습을 보였다.

12全대회가「鄧小平주의」의 뿌리를 굳히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은 틀림없는 일이지만 아직도 밑바닥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文革세력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혀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작년 6월 6中全會가 끝난후 대화를 나누고있는 중공黨주석단。12全大會에서 결정될 이들의 거취가 주목되고있다。ⓐ로부터 陳雲, 鄧小平, 胡耀邦, 李先念, 趙紫陽 (華國鋒과 葉劍英의 모습은보이지않는다)。 【AP】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개최상황

	개최시기	장소	주재자	대표수	당원수	주요사항
1全대회	1921·7·1~5	上海·嘉興	陳獨秀	12	57	중국공산당선언 당규약등결의
2全대회	22·5	上海	〃	12	123	
3全대회	23·6·10~20	廣州	〃	27	432	국민당과합작결의
4全대회	25·1	上海	〃	20	950	
5全대회	27·4·27~5·10	武漢	〃	80	57,900	27년8월陳獨秀등 우익친일파로몰아 총서기에서해임
6全대회	28·6·18~7·11	모스크바	毛澤東	118	40,000	
7全대회	45·4·23~6·11	延安	〃	755	1,210,000	49·10·1 중화인민공화국성립선언
8全대회	56·9·15~27	北京	〃	1,183	10,734,384	신당규약채택68년10월12中全會서劉少奇직무해임
9全대회	69·4·1~24	〃	〃	1,512	不明	71년9월林彪의毛澤東암살기도사건
10全대회	73·8·24~28	〃	〃	1,249	28,000,000	林彪사건처리결과보고76년9월6일毛澤東사망4인방사건발생
11全대회	77·8·12~18	〃	華國鋒	1,510	35,000,000	4인방처리결과보고신당규약채택
12全대회	82·9·1	〃	胡耀邦			

한국일보 詩壇

먼山

千祥炳

나는 議政府市에 사는데
먼山이 잘 바라 보이고
뭔가 내게 속삭이는것 같고
나를 자꾸 부르는것 같다.

게으름뱅이인 나는
찾아 가지는 안했지만
언젠가 한번은
놀러 갈까 한다.

먼山은 아주 옛날처럼 보이고
할아버지같기도 하고
돌아가신 분들같기도 하고
皇城옛터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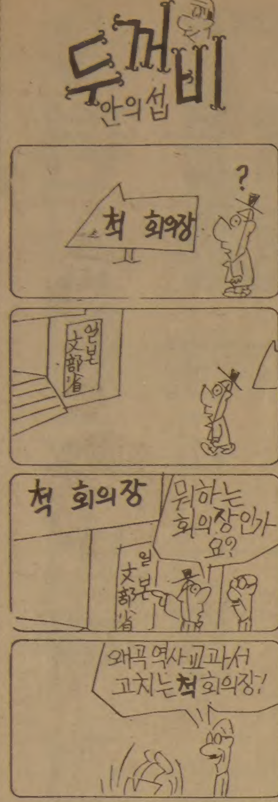
털코-트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외 각종 털제품 3000점이상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한국말을 하는 점원이 여러분을 도와 드립니다.
※ 스파다이나 208번지에는 지점이 있읍니다.
※언제나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신품 $150부터
중고 $99부터
※ 보험 세탁 스토레이지 (차게 보관), 수리 추레이드인(Trade-ins)
※ 밍크외 각종 털코-트, 자켓 모자 칼라 스톨 남성모자
<영업시간>
12:00~5:00 일요일
9:00~6:00 월, 화, 수, 토
9:00~9:00 목, 금
202+208 SPADINA AVE.
☎ : 363-6077
Mrs. 전

Everybody's talking about WAGNER..
BECAUSE OF THE SOUND THE QUALITY AND THE VALUE

WAGNER PIANO는
*품질의 높음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구라파와 미국은 물론 카나다에서 수많은 음악전문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카나다의 최우수 대학인 몬트리올의 McGill University 음악대학, University of Alberta 음악대학, Humber College 음악과 등에는 이미 Wagner Piano를 다량 애용중이며,
*상당수의 U of T음악교수들, 카나다안음악인들, 토론토한인음악인들이 Wagner Piano를 소유하고 있읍니다.
*Wagner Grand Piano는 카나다 전체 Grand Piano 판매량의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읍니다.
*Wagner Piano는 12년간 본사에서 품질을 보증합니다.
*Clear and Precise Sound, Uncompromised Quality and Unbelievable Price는 Wagner의 자랑입니다.
WAGNER HOUSE OF MUSIC
JASTOM TRADING COMPANY LIMITED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ARIO M3B 1Z3
☎ (B) 445-1516, 449-8644 (H) 286-1548 대표 박 성 희

블루어안경

◆ Zeiss(Marwite)
◆ Christian Dior
◆ Menrad
◆ 안경제조·수리·복사처방
◆ 안과의사알선 (No Appointment)
◆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 정부 보조 안경지정 영업소
◆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합니다.
※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 4시30분까지
◈영업시간 : 월~목 9:30AM~7PM
금~ 9:30AM~8PM
토~ 9:30AM~6PM
635 BLOOR ST. W
☎ : 531-2236(B) 886-0722(R)



大學 2중合格 57명적발

82학년도 "入學취소하라" 通報

문교부는 19일 82학년도 대학입시합격자중 이중 합격자가 57명이 있음을 밝혀내고 이들에 대한 합격무효및 입학취소를 해당학교에 통보했다.

문교부는 각대학으로부터 합격자명단을 받아 이를 KIST컴퓨터에 넣어 이중합격자를 가려냈는데, 이중 합격자는 전기대학에 49명, 후기대학에 8명이 있었다. 그러나 이중 20명은 등록을 하지 않아 실제로 입학취소대상자는 37명이다.

학력考査성적變造 22명도

또 문교부는 학력고사성적 변조자 22명도 밝혀내고 이들에 대해서도 입학취소를 통보했다. 이중 합격자의 합격취소는 교육법시행령 71조「▲학력고사를 거친자가 입학을 지원할수있는대학은 전후기별로 각각2개대학에 한하며, 지원대학중 전형에 응시할수있는 대학은 각각 1개대학에 한한다. ▲1개대학에 합격한자는 다른대학의 입학전형에 응시할수 없다. ▲이상의 규정을 위반해 대학입학전형에 합격한자에 대해서는 그 합격을 모두 무효로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대학별 이중 합격자는 다음과같다.

▲全南大=2 ▲忠南大=1 ▲馬山大=1 ▲慶南大=2 ▲慶熙大=1 ▲高麗大=3 ▲檀國大=2 ▲東國大=2 ▲東亞大=3 ▲西江大=1 ▲成大=2 ▲崇田大=2 ▲嶺南大=1 ▲圓光大=1 ▲朝鮮大=1 ▲漢陽大=1 ▲中央大=1 ▲外大=1 ▲京畿大=2 ▲효성여대=1 ▲明知大=1 ▲仁川大=2 ▲全州大=1 ▲順天大=1 ▲全州 우석대=1

大學 외부奬學金 휘청
金利 인하후 財源줄어

【釜山】금리인하 조치이후 각 대학의 외부장학금 지급규모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부산대의 경우 지난 1학기에는 79개단체에서 390명의 학생들에게 1인당 20만~55만원씩 모두 1억1천3백만원이 외부장학금이 지급됐으나 2학기 등록개시일을 4일 앞둔 19일 현재 5개단체에서 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해왔을 뿐이다.

또 지난 1학기중 40개단체에서 87명에게 총2천4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던 수산대도 이날현재 이들 단체에서 16명에게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해왔다.

이에따라 각대학측은 장학재단측에 재추천의뢰서를 보내는등 장학금 확보에 부심하고있다. 이같이 외부장학금 규모가 줄어든것은 대부분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해오던 장학단체들의 재원이 금리인하에따라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聯】

콜레라 汚染地여행 入國者 철저히체크

보사부는 19일 콜레라방역작업을 효과적으로 하기위해 콜레라오염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온 입국자에대한 사후건강체크를 텔렉스 또는 전통을하도록했다.

보사부는 이날 종전에 각 검역소장이 입국자에대한 건강설문서를 거주지 관할보건소에 서면으로 통보하던것을 중지하고 그대신 보사부가 전통 또는 텔렉스로 해당시·도에, 또각시·도는 해당보건소에 전통으로 통보토록 한것이다.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브레이크故障 버스 左衝右突 48명다쳐

19일상오8시20분께 서울九老區加里峰洞 공단5거리 버스정류장에서 상마운수소속 서울5사6874호 시내버스(운전사 劉永祺·30)가 徐영원씨(30·서울九老區九老3洞782의12)가 타고가던 50cc오토바이를 들이받은뒤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고있던 좌석버스2대와 잇달아 충돌, 徐씨등 5명이 중상을입고 金昌培씨(43·공원·서울永登浦區楊坪1洞30)등 43명이 경상을입었다.

사고버스운전사 劉씨는 버스가 정류장에 들어서면서 브레이크가 고장나 徐씨의 50cc오토바이를 받은뒤 보성운수소속 서울5사6154호 좌석버스와 상마운수소속 서울5사9997호 좌석버스(운전사 林상순·49)를 들이받았다고 말했다.

光州에도 「腦炎증세」
濟州에선 또 1명 숨져

【光州】금년들어 도내에서 뇌염증세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光州에서도 19일 처음으로 뇌염증세 환자가 발생했다.

全南大 의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는 朴모양(10·光州市西區芳林2洞)은 4일전부터 뇌염증세로 앓다가 이날 아침 입원했으며 朴모양(12·莞島郡古今面)등 島지방에서 2명, 新安1명, 海南1명등 모두 5명의 신환자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밖에 이날상오 木浦성콜롬반병원에 3명의 뇌염증세환자가 입원했다.

이로써 전남도내에는 모두 19명의 뇌염증세 환자가 발생, 2명이 완쾌되고 17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聯】

【濟州】濟州市 한일병원에 뇌염증세로 입원중이던 양모군(19·北濟州郡涯月邑)이 18일밤10시40분께 숨졌다. 濟州에서는 이달들어 지금까지 모두8명의환자가 뇌염증세로 앓아오다 이중3명이 숨졌다. 【聯】

通知안해준 身元보증인엔 "損害배상 責任없다" 判示

서울 민사지법합의 10부(재판장 全忠煥부장판사)는 19일 기아산업주식회사가 趙鍾洙씨(서울 西大門區弘恩洞152의1)등 3명을 상대로 낸 3천8백만원의 신원보증채무금청구소송에서 「기아산업은 신원보증상의 통지의무를 이행치않은 잘못이 인정되므로 신원보증인 趙씨등은 배상책임이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기아산업은 지난 78년12월부터 피고趙씨등의 신원보증으로 金모씨를 이회사동부지점판매사원으로 고용했는데 金씨가 이회사 같은건물에서 트커버상을 내어경영하다 빚을지자 3천8백만원의 자동차판매대금을 횡령, 趙씨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관결문을통해 「회사측은 피고용인 金씨가 재직중에 개인사업을벌이다 부채를 지는등 신원보증인에게 금전적으로 책임을 지울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않아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수있는 기회를 박탈한것이므로 손해에대해 배상할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야구狂

게임없는 날엔 미친다는 崔沂柱씨
외톨이人生…혼자 기록하고 解說하고

崔沂柱씨(사진·41·東大門區徽慶洞168의4)는 야구에 미친 사람이다. 야구狂이라 불러도 좋다. 자신도 야구가 없다면 인생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는 야구경기가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동장에 나타난다. 그외에 달리 할일도 없지만….

꾀죄죄한 옷차림, 텁수룩한 수염이 그를 한층 초라하게 보이게 하지만 쭉쭉뻗는 타선을 지그시 바라보는 그의 눈매는 보통사람것과 다르다. 빅게임이건 보잘것 없는 게임이건 그는 열심히 기록하고 혼자 해설하며 중얼댄다. 그의 머리속엔 웬만한 선수의 이력과 타율이 입력(入力)돼 있어 가위「야구컴퓨터」다. 어느 야구기자도 방송해설자도 그의 정확성에 필적할수가 없다.

서울운동장내야석주변에서 그를 몰라보면 야구팬축에 끼지못한다. 그래서 그가얻은 별명은 야구박사. 「야구도사」라고 불리기도 한다.

지난23년간 경기있는날 서울운동장을 거르지 않았으니, 그래서 약 1만게임의 야구를 지켜본꼴이어서 그런 별명은 조금도 과장이 아니다. 그래서 崔씨는 20여년전 白仁天의 홈런모션이나 崔寬洙의 활약상을 데이터를 들이대며 재현해 말할수 있다.

감독들도 낯선팀을 만나게되면 崔씨한테 찾아와 상대편전력등 정보를 얻어가기도 한다.

살붙이라고는 아무도없는 외톨이 인생. 야구외에 아무도 그와 벗해줄 사람이 없다. 그런 외로움이 그를 야구광으로 만든게 분명하다. 그에게 행복했던 시절이란 야구장청소부로 일하던 1년반. 올해부터 여자만 쓰는 통에 쫓겨났다.

그러나 그는 야구장무상출입의영광을 안고 살았다. 그의 얼굴이 바로 입장권이기 때문이다.

그러는 그가 이따금 「핏대」를 올릴때가있다. 상대방의 전력을 알아보려■기신거리던 감독들이 평소에는 언제 봤느냐는 식으로 고개를돌릴때 그 몰인정이 사무친다고 했다. 그래서 지난16일 봉황야구 재일교포對北一高의 게임때 재일동포팀을 위해 기록을 해주고 그들과 함께 하루저녁 기숙을 같이하여 인간대우를 받고「야구인생」을 평가받는일이 두고 두고 흐뭇한 모양이다.

崔씨가 이제 자리잡혀가는 야구붐속에서 그독특한 삶을 정착할 길은 없을까. 【兪奭根기자】

UHF 難視聽 엉뚱한 時間帶 무성의한 製作

교육TV放送 하나마나

18개월에 시청률 10%이하
期待어긋나 教材도 안팔려

한국教育開發院서 全國조사

한때 교재마저 구하기 힘들었던「교육TV방송」이 시청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교육TV방송은 정부의 과외금지조치이후 「학교와 가정을 연결,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2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몇달동안은 일반인들까지 참여, 시청률이 높았고 따라서 교재도 품귀상태였다.

이처럼 인기가 많았던교육TV방송이 실시1년 6개월만에 실패로 지적되는 것은 ▲전국에걸쳐 난시청 지역이 많고 ▲방송시간대가 맞지않으며 ▲프로운영과 제작이 무성의하기 때문인것으로 풀이되고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전국에 걸쳐 자체조사결과 시청률이 10%를 밑돌고있으며 한때최고 40만부씩 팔렸던 교재가 거의 팔리지않아 교재생산을 맡았던 출판사가 일방적으로 해약을 통고해옴으로써 재확인됐다.

난시청 지역은 서울이 43% 농촌지역이 27%로많고 가시청지역이라도 옥외안테나를 따로 시설해야하는 불편이뒤따른다. 난시청지역이 많이 생기는 것은 초고주파극초단파(UHF)를 이용하기때문인데 이때문에 교육방송에 다이얼을 맞춰도 화면이 불안정하거나 윤곽이 뚜렷치않아 짜증이 나게되고 계속 시청이 어렵게 된다는것.

또 방송시간도 학생들이 실제 시청할수있는 시간과는 거리가있는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가장 이상적인 방송시간은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에 남아있는 시간이지만 이시간대에는 방송을 아예시작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유치원이나 국민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방송이고 학교교무를보충할수가있는 중등교육과목은 학생들이 귀가하는 오후7시 이후이다. 이시간대는 다른 방송국들이 보도 드라마 쇼등 인기프로를 방영하고있어 TV수상기가 한대뿐인 대부분의 가정에서 학생들이 교육방송을 시청하기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이밖에 프로제작과 홍보에도 많은 문제가있다. 학과목의 프로는 대부분 방송제작에 경험이적은 사람들이 만들고있는데다 예산이 부족해 흥미가없는 딱딱한프로가 되기일쑤이며 방영프로그램에 관한 안내나 홍보도 제대로 되지않고있다.

교육방송에대한 관심이 떨어지자 방송교육교재도 처음에는 40만부가팔렸는데 거의 한부도 팔리지않고있다.

이때문에 9개과목을 출판하는 교학사의 경우 과목당 1만부씩을 생산했으나 서점으로 출고된 것은 30%도 안되며 출고된 서점에서도 팔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교학사측은 6천여만원의 원고료도 찾지못한 상태로 2학기교재 생산을 포기, 교육개발원에 해약통고를 했다는 것.

이밖에 일선교사들이 강사들의 대부분이 동료교사들로 구성되어있어 학생들에 적극적인 시청권장을 꺼려하고있는것도 한원인이 되고있다. 【鄭在龍기자】

金州에 주문食單制 첫선
맛의고장에 異色식당…낭비줄여

【金州】맛의 고장 金州에주문식 식단제(사진)를 실시하는 이색식당이 등장, 고객들의 인기를 끌고있다.

시가 19일 식생활개선을위해 도내 최초로 주문식 식단제시범업소로 지정, 운영돼고있는 업소는 시내 慶園동「미만회관」.

이식당은 백반한상에 5백원짜리 기본 식단(밥·콩나물국·김치·간장)과 그밖의 반찬은 주문에 의해 제공하는데 주문식반찬은 2백원짜리 특수김치에서부터 2천5백원짜리 생선찌개까지 16가지가 다양하게 구비돼 있다.

반찬이 많아 푸짐한 식탁으로 유명한 金州시가 주문식 식단제를 실시하게된것은 그동안 한상에 20여가지의반찬이 올라 낭비가 많고 대부분의 반찬이 다시 사용돼 비위생적인 요소가 많기때문이다.

이날 주문식 식단제평가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일반백반보다 훨씬 값이 싸고 위생적이었다」면서「그러나 자칫 맛의 질이 떨어져 金州음식의 명예가 손상되지않을까 우려되기도한다」고 말했다.

市는 이제도가 평가회에서 대체로 좋은 반응을 얻음에 따라 앞으로 시범업소를 확대할 방침이다. 【聯】

光山 農協보관 잠견6톤증발

【光州】농협의 담보물로 창고안에 보관중이던 잠견 28톤중 6·8톤(싯가 5천3백만원)이 감쪽같이 없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농협전남도지회 光山郡지부는 19일 전남光山郡松汀邑新村里 한영견업(대표 朴종영·46)창고에 보관중이던 탁양도담보물 잠견6·8톤이 지난5월~6월사이 없어졌다고 전남光山경찰서에 신고했다.

농협에 따르면 지난6월17일부터 10일간 창고안에 든 잠견 정밀재고조사를 실시하던중 빈상자가 발견돼 정밀조사를 편결과 이같은 증발사실이 밝혀졌다는것. 【聯】

趙治勳 3局이겨 碁聖戰 1승2패

【東京19日=宋孝彬특파원】趙治勳名人은 18일 東京일본기원에서 거행된 제7期碁聖戰도전5번기 제3국에서 오오다께(大竹英雄)碁聖에게 불계승, 1승2패를 기록했다. 趙名人의 질흑으로 시작된 이대국은 1백69수만에 끝났는데 제4국은 25일열린다.

만삭아내 죽이고 自殺企圖
노름빚 고민 男便

【釜山】부산東部경찰서는 19일 도박으로 돈을 잃고 진빚을 갚을 길이 없자 임신7개월된 처를 목졸라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李錫朱씨(26·釜山市東區水晶洞477)를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李씨는 지난2월부터 도박에 손을대어 3백만원을 잃은후 처남에게 1백만원어치의 가계수표를 빌어 또 다시 노름판에서 잃자 부도가 나면 처남 崔씨가 구속될것을 고민하던중 19일 새벽1시께 방에서 잠자고있는 처를 목졸라 죽이고 자신도 넥타이로 목을 매 자살하려다 실패했다.

李씨는 다시 면도날로 양손동맥을 끊어 자살을 기도했으나 또실패하자 19일새벽 東部서에 자수해왔다. 【聯】

버린計量器 재생
有名社상표붙여 2천개 市販 6명拘束

서울永登浦경찰서는 19일 崔相憲씨(33·서울冠岳區奉天3洞1의215) 權五徹씨(33·서울永登浦區新吉洞3034)등6명을 상표법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및사기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金興洙씨(40)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15일서울永登浦區大林1洞916의13에 20여평 크기의 무허가계량기 재생공장을 차려놓고 한전에서 폐기처분한 가정용전기 계량기 5천7백개를 1개당 1천원씩 사들여 불법재생한뒤 이가운데 2천개를 1개당 5천원씩받고 시중에 팔아온 혐의이다. 이들은 재생한 계량기에 D사 K사일본 히다찌사등 상표를 위조해 붙여 팔아왔다는 것.

경찰은 한전에서 계량기를 폐기할 경우 재생할수 없도록 완전히 깨뜨려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않아 재생이 가능했던점을 중시, 한전 직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있다.

農村주택改良 2백만원씩 절감케 지원

내무부는 19일 농촌에서주택을건립할때 20평짜리 1동당 평균2백만원씩의 건축비를절감할수있도록 농촌주택개량사업지원방안을마련, 전국시·도에 시달했다.

이방안은 ▲양회를 중앙에서 일괄구입, 해당시·군에서 운송비를 부담하여 수요농가에 공급하고 ▲주택개량에필요한 골재의 채취원을 지정, 골재를 무료로 공급하며 ▲군직영블록공장에서 실비로 양질의 블록을 제조, 공급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전액면제, 지방세와 수수료는 대폭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간 면제조치토록 한다는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농협共濟 1회 19만원 拂入
事故死여인 遺族에6천만원

농협상록(常綠)공제에가입, 1회불입금 19만4천원을 냈던 金智女씨(여·30·경남昌寧郡靈山面竹紗里)가 사고로 숨지자 6천만원의 공제금을 유족들이 받았다.

19일 농협에 따르면 金씨는 지난3월 靈山단협의 권유로 2백만원짜리상록 공제에가입한후 1회공제금을 낸는데 지난 6월30일 임신7개월의 몸으로 집앞 우물가에서 머리를 감다 뒤편축대가 무너져 머리에 타박상을입고 숨졌었다.

金씨 유족들이 받은 사망공제금은 농협사상 최고액수로 계약고의 30배, 공제료불입액의 3백9배나된다.

5行뉴스

◆소아마비豫防 무료接種 보사부는 오는 9월20일부터 12월18일까지 세차례에걸쳐 소아마비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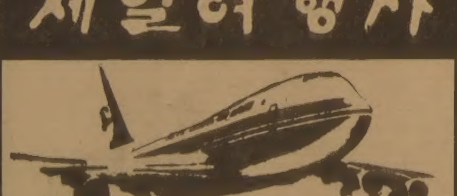
무인신문판매대 블루어에 설치
○음식점 한국관앞
○40¢ 넣으면 신문통 문이 열립니다.
○식품점서와 같이 당일발행된 신문을 사실수 있음.
토론토 한국일보

8월 한달간 Special Offer
WORLD BOOK
★어린이를 위한 SPECIAL VOLUME "CHILD CRAFT"
★29,000이상의 사진, 그림, 지도및 차트포함

22권 World Book
문의처 : 낮 533－2361 Mrs. 김
밤 242－5774

맛사지

RELAX IN PRIVATE COMFORT
'Whirlpool' 'Sauna' 'Showers' 'Gym'
OPEN 10 a.m.-1 a.m.
5170 DIXIE ROAD
OPEN SUNDAYS 624-8822
(near airport)
MISSISSAUGA

제일여행사

■모국방문 특별요금
KAL(뉴욕 또는 LA 경유)
CP, JAL(VANCOUVER 경유)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각종단체 관광요금
■여권, VISA 수속 서비스
■방문초청, 이민초청
(제반수속 안내및 작성)
(B)535－2377
(R)366－0864
649A BLOOR ST. W.

유지헌
신용목

종합보험

김 홍 량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주택, 상점보험
●사업보험
●R. R. S. P.
●INCOME AVERAGING ANNUITY
●PENSION
FINANCIAL & INSURANCE CONSULTANT
961－3774(B)
277－8733(B)
624－2103(R)
IMPERIAL LIFE
The Imperial Life Assurance Company of Canada
Suite507, 586 Eglinton Av. E.
Tor. Ont. M4P 1P2
●CAPITAL GAIN, 높은 소득으로 인한 높은 세금의 조절및 경감방안
●기업계승에 따른 문제처리
●생활안정금고

在日동포、光州一 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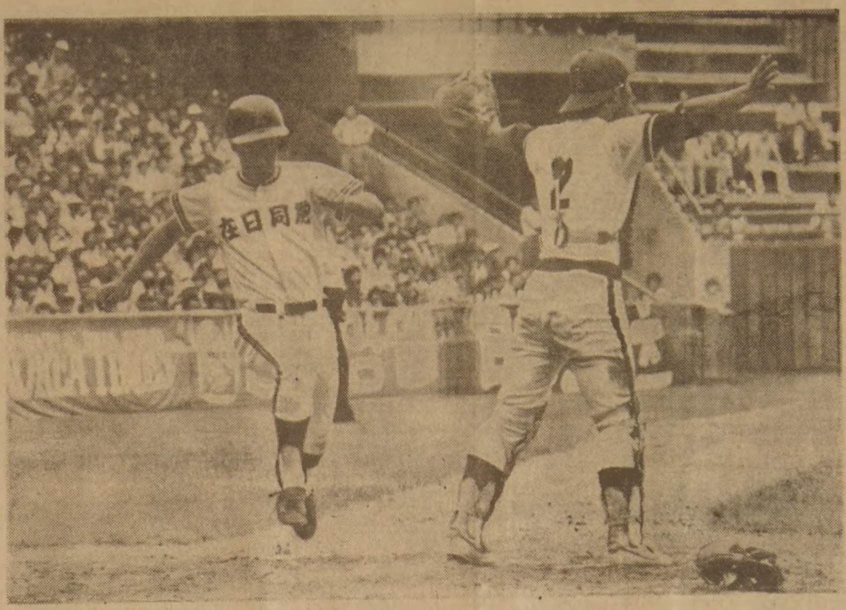
8년만에 두번째 결승進出 幸運

在日 쇠팔뚝 梁視鐵 5게임完投勝

빗속잇단 惡送球·에러 光州一 자멸 6-3

제12회 봉황대기고교야구

초록 봉황대기는 대한해협을 건너갈 것인가。무쇠팔을 가진 梁視鐵의 5게임째 완투에 힘입어 在日同胞학생야구팀은 19일 잠실구장에서 벌어진 대회17일째 준결승전에서 명문 光州一高를 6-3으로 물리치고 74년이후 8년만에 두번째 결승에 올라섰다。慶北高를 올드 게임으로 제압하고 봉황대기 4강에 도약했던 光州一高는 소나기가 지나가 미끄러운 그라운드에서 연달아 4개의 수비실책을 범하고 적시타를 얻어 맞아 자멸했다。18일 야간경기에서 光州一高는 투·포수를 겸한 1년생 朴俊泰의 분투와 4회초 金星圭의 중전결승타를 비롯한 집중안타로 결승3점을 얻어 淸州高를 6-3으로 제압 준결승전에 올랐다。이날 잠실구장에는 개장이래 최대의 인파가 몰려 스탠드를 가득메웠으며 경기장에 들어오지 못한 많은 팬들이 발을 구르기도 했다.



◇홈인…홈인… 在日同胞와 光州一高의 준결승전。在日공격 1회초 2死후 2루주자 河信之가 梁視鐵의 중전안타로 홈인, 선제 1점을 올리고있다。

在日同胞-光州一高

빗속에서 慶北高가 허물어졌듯이 그렇게 光州一高도 무너졌다. 명문 慶北에 치욕적인 콜드게임패를 안겨준 光州一高는 비로 1시간 쉬고나와 허둥거리기 시작, 2·3회초 연달아 2안타를 얻어 맞고 2개의 범실을 연발, 자멸하고 말았다.

갈수록 위력을 더해가는 재일동포는 1회초 첫공격에서 2死후 3번 河信之가 중전안타를 때리고 2盜, 4번 梁視鐵의 중전적시타로 선제점을 올렸다.

4게임을 완투하고 5번째 게임에 나선 쇠팔뚝 梁視鐵은 1회말 光州一 반격을 1개의 안타로 막았다.

소나기로 1시간을 기다려 재개된 2회초 공격에서 재일동포는 미처 수비태세를 갖추지 못한 光州一을 급습, 잇단 단점실로 승리의 발판을 만들었다. 선두 6번 金勳이 기습번트로 光州一 선발투수 朴俊泰의 수비범실을 유발, 1루에서 살았으며 7번 林升俊이 우전적시타로 朴俊泰를 마운드에서 캐처박스로 내몰았다. 1死후 9번 權仁志가 범살에 알맞는 타구를 날렸으나 光州一 2루수 徐昌基가 조급히 서두르다 2루에 악송구, 2점째를 허락했으며 2死후 2번 裵俊漢이 유격수 강습 내야안타를 때려 또 한점을 추가 3-0의 리드를 잡았다.

2루가 함정이었다. 光州一高는 3회초 1死후 또다시 평범한 땅볼을 1루에 악송구한 徐昌基의 두번째 실책으로 헤어날수 없는 수렁에 빠졌다. 찬스를 놓치지않고 6번 金勳은 유격수앞 내야안타를 날리고 7번 林升俊이 좌전안타를 날려 4점째를, 林의 타구를 잡은후 우익수 鄭永鎭의 악송구로 계속된 1死1·3루 찬스에서 8번 金義治의 스퀴즈번트로 5점째를 기록, 승리의 기반을 다져놓았다.

梁視鐵은 위력적인 속구와 절묘한 커브를 섞어가며 무리없는 투구로 光州一高의 반격을 철저히 봉쇄했다.

光州一高-淸州高

마운드에서 캐처·포수에서 두루 활약을 보이고 있는 전천후신병기 朴俊泰가 淸州高타봉의 불을껐다. 淸州는 미처 이길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1死후 연속 2안타를 때리고도 오히려 2死1루로 몰렸고 결승질치는 송구를 보였다. 한차례의 동점을 예고하는듯 초반은 오히려 淸州강세로 또했다. 光州一高가 1회초 첫타자 金星圭의 좌월2루타와 보내기번트 땅볼로 1점을 선취하자 淸州역시 1회말 선두 1번 李重和가 우월 3루타를 날리고 스퀴즈플레이로 홈을 밟아 1-1의 타이를 만들었다.

2회말에는 구원등판한 光州一高 1년생투수 朴俊泰가 제컨트롤을 찾지못하는 틈을 타 8번 韓度煥이 좌월 2루타를 날리고 포볼3개를 얻어내 밀어내기 1득점으로 2-1로 역전했다.

3회까지 淸州페이스에 몰려 다니던 光州一高는 4회초 선두 4번 鄭永鎭이 중전안타로 淸州선발 張定淳을 다운시키고 보내기번트로 2進한후 포볼을 고른 1루주자 金倉鎭과 더블스틸을 감행, 1死2·3루의 찬스를 만들었다. 7번 相柱가 유격수 깊숙이 파고드는 땅볼을 때려 3루주자 鄭永鎭은 2-2의 동점을 만들고 계속된 1·3루 찬스에서 9번 金鎭貴가 투수를 강습, 3루로 튀겨나가는 내야안타를, 1번 金星圭가 중전적시타를 터뜨려 4-2로 전세를 뒤엎었다.

光州一은 5회초에도 선두 3번 朴哲祐가 좌중월 3루타를 때리고 4번 鄭永鎭이 좌전적시타로 뒤를 받쳐 1점을 추가했다.

淸州는 투·포수를 겸하는 光州一 1년생 朴俊泰의 역투에 눌리다가 4회말 1死후 8번 韓度煥이 우전안타, 9번 張定淳이 좌전안타로 연타를 날렸으나 2루주자 韓이 오버런으로 중계된볼에 태그아웃당해 기회를 잃었다. 7회말에는 안타1개와 번째 계투에 나선 光州一 투수 文熙洙로부터 연속포볼3개를 빼앗아 밀어내기 1점을 얻었으나 계속된 2死만루찬스를 후속타자의 삼진으로 놓쳤으며 8회말 역시 3안타를 날리고도 졸공으로 득점없이 물러났다.

봉황스타

鄭永鎭

光州一 4번 鄭永鎭

침묵끝에 對淸州 逆轉砲門

배트가 맞지않아 실의에 빠졌던 鄭永鎭이 對淸州高전에서 자신을 되찾았다. 강호 慶北高와의 대전서 3타수무안타를 기록했던 鄭永鎭은 淸州高와의 경기 첫타석서는 맥없이 2루수 플라이로 물러났다.

그러나 4회초 선두타자로 두번째 타석에 들어선 鄭은 淸州선발 張定淳을 우전안타로 다운시키며 이대회들어 첫안타를 기록했다. 이를 발판으로 光州一高는 4-2의 역전에 성공했고 鄭永鎭은 5회초에도 중전적시타로 4번타자 구실을 톡톡히 해냈다.

鄭永鎭은 서석국교 6년때 야구를 시작, 전국무대를 휩쓸던 충장중의 중심타자로 활약했었다.

2년생으로 4번타자로 중용한 감독의 기대에 부응하기위해 하루 수백개씩 스윙을 했으나 이상하게도 이번대회서는 불발로 고민했다. 『2안타도 승리에 ··· 봉황대기 첫우승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鄭은 다짐하고있다.

◇제17일 준결승전

재일동포	122	010	000	6
광주일고	001	000	011	3

▲재일투수=梁視鐵 포수=權仁志 ▲광주일투수=朴俊泰·文熙洙(2회) 포수=金木政·朴俊泰(2회) ▲안타=재일 9-8 광주일

◇제16일 준준결승

광주일고	100	310	001	6
청주고	110	000	100	3

▲광주일투수=李隣喆·朴俊泰(1회)·文熙洙(7회) 포수=朴俊泰(1·7회)·金木政(1회) ▲청주투수=張定淳·崔有植(4회) 포수=李換晃 ▲안타=광주13-11청주

한국여자、中共에 憤敗

環太平洋J배구 身長·기량劣勢 3-1로

【東京支社】한국 여자주니어 배구대표팀은 19일 日本 요코하마 문화체육관에서 개막된 제9회 환(環)태평양주니어 배구대회 첫 경기서 장신의 中共에 3-1로 패했다.

한국팀은 국내여고 최강 信女商의 李英玉·林惠淑·金仁淑·金容玉을 주축으로, 美都波의 李明姬·金玉順등을 보강하여 구성됐으며, 中共은 지난해 세계여자주니어선수권대회(페루)서 3위를 차지할 당시의 주니어대표팀 멤버가 그대로 였다. 中共은 평균신장 180cm로 최단신선수가 176cm。평균신장 175cm의 한국은 신장·기량등에서 中共에 뒤졌다.

한국은 제3세트서 李明姬·金容玉을 빼고 金吉順·沈惠卿을 내세워 15-11로 승리, 제4세트서도 한때 4-0까지 리드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이번대회에는 여자 7개, 남자 8개팀이 출전, 풀리그로 대회패권을 가리게된다.

◇제1차전 ▲여자

중공 3 (15-7, 11-15, 15-9, 15-2) 1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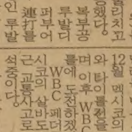
◇한국팀 대진일정 ▲20일=對濠洲(여·3시)=對濠洲(남·4시반) ▲21일=對대만(여·4시반)=對뉴질랜드(남·7시반) ▲22일=對日本고교선발(남·12시)=對日本주니어(여·3시) ▲23일=對캐나다(여·3시)=對中共(남·7시반) ▲24일=對캐나다(남·7시반)=對日本주니어(여·1시반) ▲25일=對日本주니어(남·12시)

고메스、16차防禦성공

WBC S밴텀級 멕시코 루발디노에 TKO勝

"한번더 방어전…페더級도전"

【산환(푸에르토리코)聯=UPI聯】프로복싱 WBC 슈퍼밴텀급챔피언 윌프레도·고메스(25·푸에르토리코)는 19일낮(한국시간) 멕시코의 도전자 로베르토·루발디노(26·동급WBC3위)를 7회종료 TKO로 물리치고 타이틀 16차방어에 성공했다.



◇고메스

고메스는 날카로운 복부공격으로 기선을 잡고 루발디노의 안면에 강타를 퍼부어 리드를 잡았다. 좌우連打를 많이 맞아 출혈이 심해진 루발디노는 7라운드가 끝난후 게임을 포기했다.

이번 방어전에서 17만5천달러를 받은 고메스는 오는 12월 멕시코의 루페·핀토르와 타이틀전을 벌일 계획이며 이후 WBC 페더급 타이틀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페더급은 WBC 챔피언 살바도르·산체스가 최근 교통사고로 숨져 현재 공석중이다.

고메스는 이로써 프로전적 37승(37KO) 1무 1패를 기록했다.

韓國세네갈과 비겨 메杯축구 1대1로

【쿠알라룸푸르18日=聯】제26회 메르데카배국제축구대회에 출전중인 한국은 18일밤 준결리그 두번째경기에서 세네갈과 1-1로 비겼다.

17일 가나와의 1차경기에서 1-0으로 패한바 있는 한국은 이날 전반7분 李康錫이 센터링한 볼을 레프트윙 金龍海가 득공으로 연결, 선취점을 올렸으나 후반22분 세네갈의 주공격수 무세이모우·디오그에게 동점골을 허용하고 말았다.

全州에 다시부는「蹴球바람」

全州建工 KBS盃축구서 감격의 우승

"30년만의 慶事" 뒷바라지同門들 웃음꽃

30년만에 차지한 우승은 감격적이었다.

제1회 KBS배 전국축·고교축구대회서 우승한 全州工高의 50년대초 축구의 명문이었던 全州建工은 52년과 53년 전국종·고축구선수권대회를 連覇했고 54년에는 준우승을 차지했었다. 당시 주전선수였던 林國煥 金洪福 徐成五 趙南秀등은 후에 국가대표선수로 명성을 떨쳤다.

全州工 축구는 60년대에 들어서 사양길에 접어들었으며 76년 全州建設工高로 이름이 바뀐후에는 축구부가 해체됐다. 그러나 축구의 명성을 되찾기위한 동문들의 열의로 지난해 3월 팀이 부활됐다. 全州해성출신을 주축으로 구성된 축구부는 동문들의 지원으로 육성되고 있는데 재출범

팀復活 2년만에

2년만에 전국우승을 쟁취, 모교뿐만 아니라 全州시민들을 놀라게했다. 全州는 54년이후 한번도 축구우승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1회 KBS배 추계대회로 금년도 전국규모 10개고교대회 가운데 6개대회가 끝났다. 특이한 현상은 우승팀이 모두 다른점.

지난 3월 제1회 KBS배 춘계대회서는 安養工高가 우승했고 晉州MBC대회는 晉州高가, 5월의 大邱MBC대회는 錦湖高, 또 6월의 대통령금배대회서는 昌信工高가, 축구협회장기서는 大倫高가 각각 패권을 차지한것이다.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것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서울세가 후퇴하고 반면 지방축구가 새로운선수들을 바탕으로 상승기류를 타고있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말하고있다.【安奉煥기자】

柳承安 2점홈런

프로야구 MBC、해태 눌러

MBC靑龍은 18일밤 서울운동장서 벌어진 해태타이거스와의 경기서 8회초 柳承安의 2점홈런등으로 9-2로 승리, 13승5패로 3위를 마크했다.

지난 5일 光州에서 9회까지 7-7로 비긴채 일시 정지됐다가 이날 재개된 계속경기에서는 MBC가 10회연장끝에 해태에 8-7로 승리했다.

仁川경기에서 三美슈퍼스타즈는 三星라이온즈에 3-2로 패배, 후기리그들어 기록적인 10連敗를 당했다.

◇18일전적 ◆仁川

삼성	010	001	100	3
삼미	010	000	100	2

▲홈런=金浩仁(2회) 張貞起(7회·이상삼미)

◆서울 ▲계속경기

MBC	010	020	103	1	8
해태	001	221	001	0	7

▲2회전

MBC	003	000	060	9
해태	020	000	000	2

▲홈런=柳承安(9회)·金一權(6회·이상MBC)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朴婉緒 作 金光培 畫 <194>

양달 ㉙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 오매불망 그 여자 생각만 했나보죠』

질투해선 안돼。질투할 건덕지도 없지만 질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만도 참을수 없는 일이야。 수지도 이렇게 애써 자신을 다잡았지만 지글대는 감정을 감쪽같이 감추진 못했다.

『수지, 날 너무 깔볼 생각마』

인재가 갑자기 말을 놨다. 그렇다고 두사람의 지난날의 친밀감을 돌이키려는 것 같진 않았다. 어쩌면 결별때문인지도 모른단 생각이 더욱 수지를 참담하게 했다.

『깔보다니요?』

『이제 어떤 여자한테도 환각을 볼 정도로 반할 내가 아니야. 그 정도로 여자라는 걸 졸업시켜준 건 수지 너 였고…』

인재가 수지를 난폭하게 쏘아보았다. 수지는 속속들이 섬뜩했다. 그의 눈빛엔 애정의 그루터기는커녕 증오조차도 없었기 때문이다. 무관심처럼 완전한 모욕이 또 있을까.

『내가 아까부터 신기해 마지않은 것은 수지처럼 품위있는 여자와 미스화같은 천격의 밑바닥 인생이 잠깐이나마 어떻게 그렇게 닮아보였을까하는 거야. 아무리 뜯어봐도 이목구비 중 어느 한군데도 닮은것같진 않은데…. 그렇다면 분위기가 닮았나? 아냐。분위기가 닮았다면 수지는 아마 자존심 상할걸。 여자의 분위기처럼 환경과 교양을 타는게 없는데 서로의 신분이 하늘과 땅 차이인건 이미 아는 사실이니 그도 아닐거야. 그렇다면 뭐가 두 사람 사이에 일맥상통하고 있었을까?』

인재는 수지를 쏘아보기를 멈추지않은채 연방 고개를 갸우뚱대며 지껄였다. 마치 재미있는 수수께끼를 풀려고 고심하는것처럼 꾸미는게 음흉했다.

『아、그만、그만해두세요』

수지가 날카롭게 인재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의 말뿐아니라 그의 눈빛도 가로막고 싶었다. 그가 마침내 그녀의 얼굴에서 오목이와 일맥상통하는 생생한 핏줄을 끄집어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차라리 타당했다. 그 보다는 자신속에 가두어놓은 오목이가 자신의 아름다운 허위를 뚫고 튀어나올 것 같은 황당한 생각이 그의 눈빛을 가리고 싶게했다.

『실없는 얘기말고 우리에게 할 얘기가 아직 남아있던가?』

그가 부질없는 싸움에 제풀에 싫증이 난양 맥빠진 소리를 냈다.

『오목이 일을 같이 의논하고 싶었어요』

수지도 차분하게 말했다.

『오목이 일을 의논해?』

인재의 권태로운 표정에 금이 가면서 혐오감이 드러났다. 구토를 참는것처럼 거의 생리적인 혐오감을 엿본 수지는 허둥지둥 덧붙였다.

『네、오목이의 운명과도 관계되는 일이에요. 우리 일은 깨끗이 끝난 걸로 치고 그 일을 의논할수 있었으면 해요. 그땐 내가 잘못했어요. 경솔했어요. 두고두고 뉘우치고 괴로와했어요. 고의는 아니었어요. 눈치가 없었다 뿐이지. 그렇지만 그애가 내 추측대로 인재씨를 좋아한게 사실이라면 언제고 밝혔어야 할 일 아니던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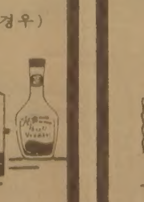
수지는 본래의 용건으로 돌아가려면 침착해야 된다고 자신을 타이르며 말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01

Family Product Distributor

도매상과 값을 비교해 보십시요.
저렴한 가격으로 무료 배달($60이상일경우) 합니다.

취급품목
Paper towels, 화장지, Detergent, 각종 Soap, 세탁비누, Pampers, 종이봉지(Paper bag)



87 Green Lane, Unit 10 Thornhill
주문☎: 889-9757

海城酒家
SEA CASTLE RESTAURANT
— 해성주가 —(구 : Sea King)
한국인 고객여러분, 과거 Sea King레스토랑이 장소를 옮겨 다시 Open했읍니다. 옛정을 잊지마시고 다시 찾아주십시오.
◇순수 중국광동식 음식 ◇일류 요리사들만 채용.
◇특히 해산물 전문. ◇1주내로 술허가 나올예정.
◎ 매일 OPEN(일요일포함) 오전10시~새벽3시까지
591 Gerrad St. E. (제랄드×브로드뷰)
새빌딩 Unit B1, B2, B3 (아래층지하실)
☎ 465-8272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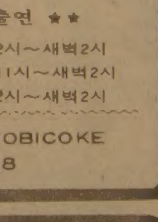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 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 매혹의 가수 배성 특별출연 ★★
◎7, 8월 여름휴가중 영업시간
월~목 : 오후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광고신청은 광고부로….
만족할만한 광고효과를 볼 수 있는 한국일보 광고를 많이 이용해 주십시요. 여러분께 보다 친절한 마음으로 신속, 정확히 맡은바 정성껏 여러분의 광고를 살펴 드리겠읍니다.
◎일반광고 : 최성조
◎안내광고 : 박경옥
토론토 한국일보 : 533-2361~4

내고향통닭집
냉 면
칼국수 전문
658½ BLOOR ST. W.
☎ : 537-0432

한국관
기계로 뽑는
냉면·짬뽕·짜장면
해장국·곰탕 전문
628 Bloor St. W. ☎ : 531-0277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KIM'S ART GALLERY Picture Frame Warehouse
◉각종 유화·서양화
◉사진액자 전문으로 취급
◉동양화·초상화
1286 Weston Rd.
(에그링톤×웨스톤)
(B)243--0233 (R)651-2261 김 석환

한국 CLASSIFIED

THE KOREA TIMES 한국일보 Toronto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트로피·감사패 전문
Golden Craft
◉특수인쇄(Silk Screen Printing)
◉ Engraving
◉간판 취급
(나무·유리·의류·프라스틱등 특수인쇄 전문)
1700 Wilson Ave.
(B)247-8870 (R)242-4319 김 국일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 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저녁6시 이후 전화바람)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K.D.K.Construction Co.
Met. Lic.B4298, Inside & Out
Renovations, Home Repairs,
Carpentry, Dry-Wall
Plastering, Ceiling
Concrete Work, Plumbing
Painting, Wall Papering
Tiles Etc.
921-8163
Mr. Reg. Kimura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광고문의 ☎ : 533-2361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서 울 식 품 (동부)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실내장식

"Fine Design"
설계및 허가, 시공
전화 : 622-5328 (공장) 676-1173 조 덕 남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의류수선, 패턴양재, 주문배수
전화 : 530-1046 10a.m.~5p.m 368-7258 6p.m 이후

의류수선 (남녀분 양복·양장 다 취급함)
의자 카바, Zipper 수리등 성의껏 해드립니다.
전화 문의도 환영합니다.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 히팅 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광 고 접 수
533~2361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이삿짐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전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건하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정영수 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 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31-4204 (Mr. 신)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226-3874 시 준봉

자연요법 및 지압치료, 왕진도 함(심 하섭)
요통(허리아프신 분),두통·복통·류마치스·불면증
643A Bloor St.W.(신용조합옆)(B)536-6854 (R)635-8744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경명등 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R)531-4165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화 랑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회계사무소
33 Cherryhills Rd. Concord, Ont.
전화 : 669-271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8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531-4165(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도너스숍에서 풀타임 일하실 여자분구함
시간 오전7시-오후3시(월-금)
Victoria Park & Steel (B)499-4459 (R)299-1431

일본식당 웨이트리스 키친헬퍼구함. 특히 한국인 무경험자 환영. 9월말 개업. Finch Subway 5분거리.
전화 : 826-7676(R), 222-1621(B). Mr. 모리

가정 재봉사 구함.
영어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함.
전화 : 633-2748 Mrs. Gold (토요일에는 전화사절)

유경험자(남자) Helper구함.
스카브로지역 거주하시는 분 환영.
대우 우대함. 전화 : 691-8602

풀타임 경험있고 영어할 수 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
937 Bay St. 이나, 462 Kingston Rd.로 직접내방바람.

일본식당 남자 키친헬퍼 구함.
전화 : 960-9035

도넛츠 가게에서 풀타임 밤일하실 여자분 구함.
11 p.m~8 a.m. (Rexdale×Kipling)
전화 : 743-3822, 222-3877

일본음식점에서 일할 키친헬퍼(접시닦는것 포함) 구함. 9월7일부터 일시작, 오후2시30분이후 전화요망. 전화 : 421-6016

가을까지 지텀이 잠으실분.
전화 : 633-5783 Mr. Lee

파트타임 캐셔와 헬퍼구함.
15 Queen St. E. 전화: 364-4054
직접 내방바람.

여자 캐쉬어 토·일요일하실분 구함.
오전12시~저녁8시까지. 다운타운.
전화 : 921-0624

베비시터

입주하셔서 애기봐 주실분
3871 Lawrence Ave. E.
전화 : 431-7168, 439-6428

5 일에 $ 13 로
원하시는 것을
찾으실 수 있읍니다.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개인지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쓰로페셔날 바이올리니스트의 개인지도를 받으실분 연락주십시요. (all level)
Call Mr. Wong 233-4200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우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재미있는 주간여성
식품점서 판매중

집렌트

방세놓습니다. 565 Pape Ave.
2층 전체 월 : $350
전화 : 591-6863, 438-4519

매매

여자용 여름용 한복 급매
한벌에 125불
전화 : 769-4366, 김 (오후6시이후)

상점 급매 (양도)
비지네스 전부재고품(꽃, 채소, 파일, 잡화류)및 시설일체. 자동차 양도.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분이나, 유경험자로도 책임지고 트레이닝 해드림.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으시라.
아스킹 : $10,000
전 화 : 769-5584 (서선생)

615 Bloor St. W 에 위치한 성업중인 식당 매매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1) Fast Take Out 식당 팝니다.
주매상 : $2,000(일요일 쉼) 5년 리스.
렌트 : $350/M.
2) 5 Ft. 대형 Steam Table 팝니다.
23 Helen St. Miss. Ont. 274-7010 (Mr. 유)

베커프렌차이스 매매
연락처 : 691-9414 (월-금 오후5시이후)

여자분 혼자서 운영가능한 Mall안에 있는 Variety Store 가정형편상 아주 싼 값에 드립니다. (내방 바람)
1250 South Service Rd. Miss. Ont. (Health Food & Cake)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개인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전화 : 656-7753 Mr. 최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 $3,000, 렌트 : $300(M)
전화 : 259-0323

그로서리 스토아 급매. 주매상 : $7,000.
리스 :6년. 렌트 :$1,260. 1,600 sq.Fit
계속 번창하는 지역임. 전화 : 686-0155

Private Sale. 파킹장 구비한 상업지역의 Builing 매매.
모든 Business에도 적합한 좋은 조건의 위치.크기 : 8 Rooms.
아스킹 : $219,000 전화 : 921-9847, 923-2872 (William)

개인 레스토랑 매매.(레스토랑 + Tavern)
좋은 위치. 좋은 비지네스. CN타워 근처.
300,000 Turn Over a Year. 주5일 오픈.
아스킹 : 179,000. 다운 : 75,000. 12년 리스.
더원하시면 가능함. 아주 흥미있으신 분만 연락바람.
전화 : 596-6706 (Jimmy)

버라이어티 가게매매. 주매상 : 4,200.
리스 : 5년+5년. 아스킹 : 40,000+스탁.
렌트600불. 전화 : 266-7833 (Mr. 김)

Private Sale (Tailoring Store & Building)
Good Location & Good Opportunity
Phone : 533-3888 (Antonio)

◉가게 12만달러 15%모기지. 교통이 바쁜 지역에 2 베드룸 아파트. 최고조건. 주차장이 있고. 빈가게를 인수됨.
◉아파트 빌딩 : 7동. 2층벽돌집에 주차장과 3개의 벽난로 있음. 연수입 : $25,452. 아스킹 : 200,000.
Call Doris Burda 763-5555
Cholken Real Estate.

그로서리,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5년리스 + 5년옵숀 주매상: $3,500 아스킹: 2만5천불 (이층 살림집 있음) 전화 : 463-8674

새로운 Mall속에 Hamberger & Coffee
20년의 장기 Lease에 Rent : $1,060.
현주매상 : $2,500. 앞으로 6개월내에 $5,000 보장.
주6일 영업(Short Hour). 다운페이 : $50,000
이훈모부동산
전화 : 225-1204

광 고 접 수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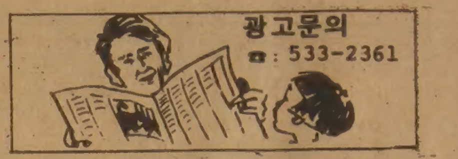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R)743-4842 Mr. 마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CEDARBRAE VOLKSWAGEN
666 Markham Rd. Scarboro.
전화 : 438-1900(B), 499-8589(R) 손명철(Michael son)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가구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레이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ANNIE'S BEAUTY SALON
◉남·녀 파마, 컷트, 화장전문, 여드름, 주름살 치료, 메니큐전문, 머리염색, 귀걸이 구멍뚫기.
◉차편제공 가능, 불란서고급 화장품 취급.
812 Queen St. E (퀸×브로드·뷰) 463-9071 Mrs.Lee

변호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비데오 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생일·파티케익등 전문 (배달가능)
534 St.Clair Ave. W. 전화 : 653-1149 Mrs.배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사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활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활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활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활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활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선물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생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